

알라위 종파의 현황 및 종파 복음화를 위한 선교전략

-시리아의 까르다하시(市)를 중심으로 -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MFR(Middle-east Asia Field Research) 14기
훈련팀¹

¹ 위 보고서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MFR(Middle-east Asia Field Research) 14기 훈련팀에서 2008년 7월 8일 ~ 2008년 7월 27일까지 시리아 라타키아주(州)의 까르다하시(市)를 중심으로 알라위 종파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이다.

I. 조사설계

1. 조사의 필요성

시리아는 지리적으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레반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로부터 근동(Near East) 지역의 중심지로 불리 우며 경제와 문화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해 왔다. 이러한 시리아가 최근에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선교적인 관점에서도 비중 있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시리아는 입국 비자 조차 받기 쉽지 않는 중동의 여러 국가들과는 달리 출 입국이 비교적 자유롭고 장기 사역을 위한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이 수월하다². 또한 시리아 정부의 소수 종교 관용 정책³에 따라 기독교도 정부의 직접적인 탄압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2006년에는 단 한 가정뿐이었던 시리아 국내 한국인 선교사 가정이 2008년 현재 열 가정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들을 통해서 시리아 내에서 다양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최근에 한국과 시리아간의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 몇몇 한국 사역자가 추방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은 타 중동권 국가들의 선교 문호가 점점 닫히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을 때, 시리아는 선교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이 개방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레반트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시리아를 거점으로 하여 인접국가와 중동의 다른 국가에 까지 선교 영역을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⁴.

오늘날 시리아의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알라위 종파는 시리아 전체 인구의 11%⁵ 밖에 되지 않는 소수 종파이지만 강력한 중앙 집권식 정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슬람 시이파에서 파생된 12이맘파의 한 분파인 소수종파이다. 그러나 1970년 알라위파 출신인 하페즈 알 아사드(Hafez al Assad)가 일으킨 무혈 쿠데타를 통해 시리아의 정치권력을

² 자녀가 학생인 경우, 자녀가 학교에 재학하는 한 부모도 시리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³ 이는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소수 알라위파의 태생적 한계에서 근원된 것으로 보인다.

⁴ 시리아의 한 사역자는 시리아가 중동 선교에 있어서 거점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⁵ <http://en.wikipedia.org/wiki/Alawite#Population> 참조

장악했고 이는 그의 둘째 아들인 현 대통령 바쉬르 알 아사드(Bashir al Assad)의 통치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정권이 이어지는 40여 년의 기간 동안 소수의 알라위 종파가 다수의 순니 무슬림을 정치적으로 이끌고 있는 기형적 구도는 시리아 내 이슬람교의 형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시리아 알라위 종파의 복음화 비율은 아직 객관적인 정보가 존재하지 않지만 지난 2006년 MFR(Middle east Field Research) 10기 훈련 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의 복음화율은 0.01% 이하로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종파 내에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조사 팀은 이러한 시리아 알라위 종파의 정치적, 종교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알라위 사람들이 주로 밀집하여 살고 있는 라타키아(Lattakia)주의 까르다하(Qardaha)시를 중심으로 알라위 종파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렇게 확보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들과의 복음의 접촉점을 제시하고, 이들을 통해 시리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다양한 선교전략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조사의 목적

- 1) 시리아(Syria) 내에 거주하고 있는 알라위(Alawite) 종파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조사하고, 특히 종교를 중심으로 한 그들의 정체성을 파악한다.
- 2) 알라위 종파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와 종교를 중심으로 확보된 그들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그들과의 복음의 접촉점을 제시하고, 다양한 선교전략들을 도출한다.
- 3) 조사를 통해 제시된 복음의 접촉점과 다양한 선교전략들을 중심으로 시리아에 거주하는 알라위 종파에 대한 정보를 한국 교계와 여러 선교단체에 알리고, 이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선교 헌신자들을 동원하며, 많은 중보기도자들을 세운다.

3. 조사지역

시리아(Syria) 라타키아(Lattakia)주(州) 까르다하(Qardaha)시(市)

시리아 내에서 알라위 종파는 전국적으로 퍼져서 살고 있지만, 특히 시리아 북서부에 위치한 라타키아(Lattakia)주의 까르다하(Qardaha)시는 거주민의 99%가 알라위 종파일 정도로 알라위의 밀집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또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알라위 종파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알라위의 고유한 생활양식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알라위 종파의 총체적인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라타키아주 까르다하시를 조사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4. 조사대상

시리아(Syria)에 거주하고 있는 알라위(Alawite) 종파

알라위(Alawite) 종파는 이슬람교의 시아파에서 파생된 12이맘파의 한 분파이다. 이들은 12이맘파에서 분리된 누사이리(Nusayriyya)파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추측되며 1920년대 프랑스 식민 통치자들에 의해 알라위(Alawite)라고 명명되기 전까지는 나씨르파로 불렸다고 한다.

5. 현장조사기간: 2008년 7월 8일 ~ 2008년 7월 27일⁶

기간	조사 지역	조사 대상	조사 방법
2008/7/8- 2008/7/27	라타키아(Lattakia)주(州) 까르다하(Qardaha)시(市)		

6. 조사인원

⁶ 이 현장에서의 조사시간 만을 포함하는 기간이다. 본 조사 팀은 2008년 3월에 구성되어 5개월 간 10주간의 학기 기간은 중 훈련(리서치 강의, 예배, 말씀양육, 캠프 2회, 리서치실습, 선교세미나, 부서모임, 지역연구 모임 등), 10일간의 합숙훈련(강의, 예배, 사전조사, 팀워크 훈련, 역할점검 등), 3주간의 현장조사, 10일간의 보고서 합숙 과정을 통해 리서치를 수행하였다.

1)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시리아 현지 조사팀⁷ 7명

	이름	학부 (학번)	역 할
1	이가민	국제어문학부 (07)	디렉터, 예배부원
2	신지윤	국제어문학부 (07)	문서자료부원
3	김성은	국제어문학부 (06)	예배부장
4	나강욱	경영경제학부 (07)	총무부장
5	이은택	상담사회복지학부 (07)	미디어부장
6	최성원	전산전자공학부 (06)	문서자료부장

2) 통역 및 현지가이드 2명

	이름	소속	역할
1	심OO	바OOOO	메인 코디
2	정OO	oO	아랍어 통역 및 가이드
3	임지훈	한동대학교	아랍어 통역 및 가이드

7. 조사방법

1) 사전조사

(1) 문헌 조사

① 인터넷 조사

www.cia.gov

www.joshuaproject.net

www.wikipedia.org 외

⁷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의 선교 훈련 단체인 GFR(Global Field Research)에 소속된 8개 지역조사 팀 중 MFR(Middle-East Asia Field Research) 훈련팀을 말한다. GFR 훈련 체계의 1단계인 훈련팀(Training Team)은 미전도 종족 조사에 중점을 두고 훈련되며, 다음 단계로는 주제별 현장조사에 중점을 둔 미션팀(Mission Team)과 전문가팀(Expert Team)이 있다.

2) 현장 조사

(1) 관찰 조사

- ① 라타키아 시 내부
- ② 까르다하시 내부

(2) 인터뷰

- ① 까르다하시 시장 인터뷰
- ② 까르다하 주민 인터뷰

(3) 문헌 조사

김한지, “시리아 소수집단 알라위파(alawites)의 집권과 국민통합 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지], 제 27권, 2호(2007),p.65-97

김종일, “중동의 수(水) 자원 분쟁 연구 -터키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중동연구], 제 24권, 2호(2006) p.65-88

이인섭, “밀레니엄 특집: [20세기 중동을 움직인 인물 50선(選)];정치, 군사: 아랍 맹주의 뜻을 품고:하피즈 아사드(Hafiz al-Asad, 시리아, 1930~)” [중동연구](서울:한국외국어 대학교 중동연구소,1998),p.153-160

황병하, “나씨르파(al-Naslriyya)와 알라위(al-Alwlyun)의 기원과 교리” [한국이슬람학회 논총] 제 6권 1호(1996),p.21-36

버나드 루이스, [중동의 역사](서울:까치글방,1998)

로버트 카폴란 , [타타르로 가는 길](서울:르네상스,2003)

브루스 커밍스 등저, [악의축의 발명](서울:지식의 풍경,2005)

김지희, [하늘과 땅과 바람의 문명](서울:세종서적, 2004)

노암 촘스키,[중동의 평화에 중동은 없다](서울:북폴리오, 2005)

토머스 L.프리드먼,[렉서스와 올리브나무],(서울:창해,2003)

토머스 L.프리드먼,[베이루트에서 예루살렘까지],(서울:창해,2003)

외교통상부, [시리아 경제동향](서울:외교통상부,2008)

외교통상부, [시리아 무역투자정보](서울:외교통상부,2008)

위키백과, www.wikipedia.org, (검색일:2008년 6월 30일)
CIA WorldFact Book,
www.cia.gov/worldfactbook, (검색일:2008년 8월 1일)
Lara Dunston, Terry Carter [Lonely Planet], (Sydney, Lonely Planet Publications, 2008)

8. 조사 성과와 한계점

알라위는 시리아의 정권을 잡고 있는 종파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시리아 내 다른 소수종파보다 외부에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또한 알라위에 대한 자료도 많다. 그러나 문헌조사는 현재 시리아 알라위에 대한 충분한 현장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비해 이 보고서는 시리아 알라위 종파의 본거지인 까르다하에서 직접 3주간의 현장조사를 통해 일궈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인터넷 자료와 다양한 서적 등에 기재되어 있는 문헌자료들을 토대로 자료의 진위여부를 가려내고, 현재 알라위 종파의 실제와 이들 종파의 앞으로의 전망 등을 밝혀내고 예상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한계점을 지닌다. 우선 소수종파의 특성상 알라위 종파는 은닉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이들의 종교와 정체를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외국인의 신분으로 조사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랐다. 또한 현재 세속화로 인해 알라위 종파의 본래 모습이 많이 사라지고, 변형되었기 때문에 문헌자료의 내용과 실제 알라위의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를 지니고 있어 정통 알라위 종교의 모습을 밝혀내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제약과 한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최대한 많은 표본조사를 통해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추출하여 알라위 종파에 대한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정보를 확보하였다. 또한 아랍어 통역을 대동하여 알라위 종교 지도자(셰크), 까르다하 시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Ⅱ. 들어가는 말

2006년 MFR 10기 조사팀이 수행한 시리아 알라위-드루즈 리서치를 통해 우리는 시리아 국내에 이슬람의 주요 2개 종파인 시아파와 순니파외에도 소수종파로 알라위파와 드루즈파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년간 MFR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에 거주하는 드루즈 종파에 초점을 맞추어 리서치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 겨울, 13기 조사팀이 드루즈 종파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 한 것으로 드루즈 종파 리서치가 일단락 되었다.

드루즈 종파에 대한 리서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리아에 거주하는 또 하나의 소수 종파인 알라위파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팀 내에서 대두되었다. 물론 이전 10기 조사팀이 알라위 종파를 대상으로 리서치를 수행 한 바가 있지만 이는 4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아랍어 통역 없이 오직 영어로만 이루어 졌다는 한계점을 지닌다.⁸ 따라서 본 조사 팀은 다시 한 번 시리아 라타키아 주 까르다하에 거주하고 있는 알라위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알라위파에 대해 조사하고,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 보고서는 시리아 및 알라위 종파의 정치와 경제, 종교가 중점적으로 쓰여졌으며 상대적으로 생활과 문화 등의 실생활과 연관된 부분들에는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우선 알라위 종파가 현재 시리아의 정권을 잡고 있어 현 정부의 정책 및 방향성이 알라위 종파의 모습에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파’의 특성상 이들만의 특징적인 모습은 종교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알라위 종교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특징적인 사항들을 도출해 내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알라위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활모습은 아랍문화와 거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같은 아랍 문화라고 하더라도 꼭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항들과 이들이 거주하는 까르다하시 만의 지역적인 특징들을 위주로 작성되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⁸ 시리아인들의 영어실력이 레바논이나 요르단과 같은 인근 국가들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뒤쳐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본 조사 팀은 시리아 현지 사역자의 도움으로 알라위파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인구의 99%가 알라위파인 까르다하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인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우리가 조사한 현재 알라위의 상황과 시리아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통해 알라위 종파의 앞으로의 변화양상을 전망해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보고서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우리의 잘못이며 보고서를 통해 온전히 영광 받으실 이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들어가는 말을 마친다.

Ⅲ. 알라위 종파의 현황

1. 일반개요

1) 지역개관

알라위의 거주지인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레반트(Levant)⁹라고 한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동 서양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고대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 제국, 로마 제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말 발굽이 거쳐간 역사를 지니고 있다. 레반트의 중심에 위치한 시리아는 소아시아의 터키와 접하며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국가이다. 바울이 회심한 장소인 다마스쿠스가 시리아의 수도이며 인구의 90%가 아랍어를 사용하는 아랍인이다. 인구는 약 1900만 명이며 전체인구 중 70.4%가 수니파 이슬람, 나머지는 이슬람의 소수 종파 및 기독교로 구성되어 있다. 시리아는 사회주의 공화제 정치체제를 택하고 있으며 현 대통령은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소수종파인 알라위파 출신이기 때문에 시리아 정부는 소수종파를 인정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럼에도 헌법상으로는 이슬람교도의 개종은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신분을 밝히고 활동하는 선교사는 거의 없다.

2) 정체성

(1) 종파유래

알라위파의 종교적 기원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알라위파의 기원에 대한 의견은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그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의견은 대부분의 알라위가 9세기 무렵 시아파의 12이맘파에서 분리된 누사이리파(Nusayriyya)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추측이다¹⁰. 누사이리파는

⁹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을 포함하는 지역을 뜻하는 불어이다.

¹⁰ 누사이리파는 10세기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생한 종파로써 페르시아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추측되나 확실하지는 않다.

12이맘과의 11번째 이맘인 알-하산 알 아스카리(al Hassan al Askary)의 신하들 중 한 명인 이븐 나씨리(Ibn Nasir)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구세주임을 주장하였다. 그 후 그는 알라의 신성을 부정하면서 정통 이슬람 신앙에서 금기시하는 음주, 동성 결혼과 같은 사항들을 허용하였다. 나씨리의 사망 이후 나씨르파는 무슬림들의 박해를 피해 시리아의 알레포 지역으로 이주했으며, 그 뒤 시리아 라타키아 산지로 이주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2) 종파명 유래

알라위파(나씨르파)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된 역사적 기록은 샤흐라스타니의 <분파와 종파>이다. 종파 성립 초창기 이후 1920년대 프랑스 식민통치자들이 이들을 알라위(Alawite)라고 명명하기 전까지는 나씨르파로 불렸다. 그 이유는 종파의 창시자인 이븐 나씨르와의 관련성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¹¹.

(3) 주요언어

다른 시리아 지역과 동일하게 북 레반트 아랍어를 사용한다. 언어로는 셈족계통 아랍어족에 속하며 이는 시리아의 다수인종인 아랍인이 쓰는 언어이다. 문자 역시 아랍문자를 사용한다.

(4) 주요종교¹²

종교로 형성된 공동체인만큼 절대다수가 알리위 종교를 믿고 있다. 이슬람교 시아파에서 파생된 이 종교는 무함마드(Muhammad)의 사위인 이맘 알리(Ali)의 가르침을 따른다.

(5) 특징

소수종교 집단으로서 알라위파는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시기에 피지배적 위치에 놓여있었다. 언제나 억압받고 차별 받던 지위에

¹¹ 나씨르파(al-Nasiriyya)와 알라위파(al-Alwiyun)의 기원과 교리 논문 참고.

¹² MFR 10기 훈련팀 보고서 참고

놓여있었던 그들은 1970년 알라위파 출신 하페즈 알 아사드가 대통령의 권좌에 오르면서 지위가 변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사회 중심부로 진입할 수 있게 된 알라위파는 그의 사망 이후까지도 그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고 있으며¹³ 특히 그들의 본거지인 까르다하 지역에 거주하는 알라위 사람들의 자부심은 상당하다.

3) 인구

시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알라위인구는 250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 중 알라위의 본거지인 라타키아 주에는 150만여 명이 살고 있다. 리서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까르다하에는 2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¹⁴. 다출산 사회인 시리아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리아의 인구 성장률은 2.5%로 중동지역에서 높은 편에 속하며, 시리아 전체 인구 중 36%가 15세 이하의 어린이들일 정도로 인구 성장 잠재력이 높다. 이러한 경향은 알라위도 예외가 아니다.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아이를 많이 낳는 농업 사회의 전통이 강한 알라위 사람들도 자녀가 많은 것을 선호한다. 최근에는 산업화의 영향으로 청년들이 학업, 취업을 위해 고향 농촌 마을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하는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1) 종파인구¹⁵

① 국가별 동일 종파 분포도

국가	거주 인구(추정치)
시리아	2,500,000
레바논	100,000
이스라엘	2,000

¹³ 일례로, 어떤 알라위파 사람들은 휴대전화에 하페즈 알 아사드의 사진을 저장해 놓고 우리 팀에게 자랑하기도 하였다.

¹⁴ 2008년 까르다하 시장 인터뷰

¹⁵ 2006년 여름, MFR 10기 훈련팀이 까르다하(Qardaha) 시청 현지인 시장님과 인터뷰한 자료 참조

(2) 인구증감

시외로 이주자가 늘고 있는 반면에 출생률도 꾸준히 늘어 도시규모는 오히려 성장세에 있다.

(3) 평균수명

평균 수명은 70세로 시리아 전체 평균 수명과 동일하다.

4) 지리 및 기후

시리아는 예로부터 레반트라 불리는 지중해의 동쪽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동부로는 이라크, 서쪽으로는 레바논, 남쪽으로는 요르단과 이스라엘, 북쪽으로는 터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지중해와 접해있는 서부지방과 사막에 위치하는 동부지방의 기후 차이가 매우 크다. 평균적으로는 여름에는 무덥고, 겨울은 비교적 포근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알라위 종파가 주로 거주하는 라타키아의 산지지역에서는 여름엔 서늘하고 겨울엔 비교적 춥다.

2. 역사

1) 시리아 역사

시리아 지방에서 발견된 문명의 흔적은 B.C. 10,000년 전의 유적으로 추정된다. 또한 초창기 도시 문명의 흔적이 우가리트(Ugarit)와 마리(Mari)에서 발견되었으며, B.C. 2,500년경 상업민족으로 유명한 페니키아인들이 지배적인 민족으로 1,500여년간 이 지역을 통치하였다. 페니키아문명의 쇠퇴 이후 앗시리아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 제국, 로마제국이 차례로 이 지역을 지배하였다.

서기 622년 아라비아 반도에서 탄생한 이슬람교의 발흥에 따라 이 지역도 급속한 이슬람화를 겪었다. 7세기에 다마스커스를 수도로 하는 움마야드 이슬람 왕조는 압바스 왕조가 등장한 750년까지 이 지역을 통치하였다. 11세기에 시리아 지역은 유럽의 기독교 세력이 성지

예루살렘의 탈환을 목표로 파견하였던 십자군의 주요 원정로가 되어 도시가 파괴되기도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16세기부터 이 지역의 지배자의 위치에 있던 오스만 투르크는 19세기말 영국과 프랑스 등 제국주의 열강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20세기에 시리아는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았지만 2차 대전 후 독립하였다. 이후 범 아랍주의를 주창하며 이스라엘과 4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반 시오니즘의 선봉장역할을 자처하였다.

2) 종파역사

이븐 나씨르에 의해 종파가 성립된 후 시리아의 알레포로 이주해 온 알라위파는 10세기 초반 함단 왕조를 세우고 약 1세기 동안 전성기를 누린다. 왕조의 몰락 이후 알레포 서부 라타키아의 산지를 근거지로 삼게 된 알라위파는 소수종파로써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세력에 맞서 전략적 대응을 하게 된다. 일례로 이슬람의 분파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군 전쟁 당시 오히려 십자군을 지원하였고, 쿠르드, 순니, 이스마일 파와도 불편한 관계를 지속했다. 알라위가 이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이슬람이라는 일신교의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신교는 오직 하나의 신만 인정하므로 누군가가 자신들이 인정하는 신의 영역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바로 이단선고라는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정통 이슬람의 시각으로 알라위를 조명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도’를 따르지 않는 이단일 뿐이었다. 따라서 알라위의 역사는 이러한 정통 이슬람의 배척을 피해 라타키아의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은신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투쟁이었다.

16세기 들어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게 된 알라위는 제국으로부터 탄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시기에 약 9만 명 이상이 학살되거나 제국의 영토에서 추방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그 후 오스만 제국은 밀레트제도¹⁶ 안에서 어느 정도의 자치를 인정받으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 1차 대전 후 패망한 오스만 제국의 뒤를 따라 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한 것은 프랑스였다. 알라위는 자신들의 근거지인

¹⁶ 밀레트 제도(Millet System)는 오스만투르크 제국이 인정한 국내 비 이슬람 교도의 종교 자치제이다. 제 7대 술탄인 마흐무드 2세 시대에 창설되었으며 종파 별로 구성된 일종의 공동체로, 비 무슬림 보호로서의 일정한 제한과 납세 의무를 제외하고는 광범하게 자치가 허용되어 언어, 종교, 풍속, 관습 및 재판권도 인정받고 있다.

라타키아 지역을 거점으로 산악 지방에서 프랑스군에 저항했지만 프랑스는 이들을 제압하기 보다는 식민통치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포섭하려고 하였다¹⁷. 그러나 2차대 전후 이 지역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강대국들의 논의에 의해 알라위의 자치는 백지화되고 시리아 국가로 편입된다.

시리아 북서부의 산지에서 비교적 폐쇄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던 소수집단 알라위파는 2차 대전 전후 군대를 통해 시리아 사회로 진출하게 된다¹⁸. 독립 후 시리아의 정국은 쿠데타로 인한 정권 교체가 자주 일어나는 등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군부의 알라위파 세력은 초국경적 민족 정당인 바트당(Baath Party)¹⁹을 통해 시리아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자 하였다. 이는 1966년 알라위파 급진 장교 살라흐 자디드(Salah Jadid)가 하페즈 알 아사드, 누르 알 딘 아타시(Nur al-Din Atassi)와 연합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것으로 확정되었다. 1970년 하페즈 알 아사드는 다시 한번 쿠데타를 일으켜 자디드를 제거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알라위파 독재체제를 수립하여 혼란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었다. 알라위파는 군 정보부장, 방공 작전 사령관 등 군부 요직을 장악했으며 국민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통제로 알라위파 자신들이 곧 국가라는 소수집단으로서의 강한 신념을 시리아 안에 녹아 들게 하였다²⁰.

3) 요약

레반트 지역에 위치한 시리아는 예로부터 동, 서양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고대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 제국, 로마 제국, 오스만 투르크를 비롯한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어왔다. 7세기 이슬람교의 탄생 이후 이 지역의 지배적인 종교는 이슬람교가 되었다. 인구의 대다수가 아랍어를 사용하고 자신의 종교를 이슬람교라고 대답하는 무슬림 문화권이 국가이다.

¹⁷ 이는 당시 프랑스 시리아 지역 고등지방행정관이었던 앙리 고로(Henry Gouraud)의 제안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시리아를 대 레바논 주, 다마스쿠스 주, 알레포 주, 알라위 주로 분할 하자고 했는데, 이는 알라위의 자치 주권을 인정했음을 뜻한다.

¹⁸ 당시 알라위파는 프랑스 위임통치 기간 중 이미 상당수가 프랑스 군대에 편입되어 전투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결과로 1946년 시리아 건국 당시 시리아 군의 20%를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라타키아 지방에서는 90%이상의 군인이 알라위파 출신이기도 하였다.

¹⁹ 바트당은 1930년대 이래로 아랍민족주의 운동 단체로 활동하다가 1946년 시리아에서 공식적인 정당으로 설립되었다. 바트당의 설립자는 순니 무슬림 아랍인 살라흐 알 딘 비타르(Salah al-Din Bitar)와 그리스 정교도 미셸 아프라끄(Michel Afaq)이다.

²⁰ Mordechai Nisan op.cit, p.124

알라위 종파는 그 가운데서 시리아 북서부 산지에서 자신들만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때로는 이슬람의 분파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십자군 편에 서서 십자군 전쟁을 치르기도 하는 등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현대에 들어서는 알라위파 출신 하페즈 알 아사드의 쿠데타에 이은 집권으로 1970년부터 시리아의 정치권력을 차지하고 있다.

3. 정치분야

1) 개요

시리아의 정식 국명은 시리아 아랍 공화국(Syria Arab Republic)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알라위파 소수 군부 정권의 독재국가이다. 1970년 쿠데타로 집권한 하페즈 알 아사드 전 대통령(사망)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북한의 지도자인 김일성 전 주석(사망)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2000년 하페즈 알 아사드 대통령의 사망 이후, 시리아의 권력구조는 그의 둘째 아들 바샤르 알 아사드를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이는 북한에서 김일성 전 주석의 권력이 그의 아들 김정일에게로 세습되었던 사례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2007년 바샤르는 97%의 지지율로 재선되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과의 핵 거래 의혹으로 인해 미국과 외교적인 갈등이 존재하지만, 국내적으로는 점차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을 위한 점진적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²¹.

2) 정치구조

시리아의 정치권력은 바트당의 알라위파가 장악하고 있다. 알라위파 출신인 하페즈 알 아사드가 집권한 1970년 이후, 알라위파 소수 정권은 비밀 경찰과 군대를 동원한 철권통치를 펼치며 국내의 정적들을 숙청하는 등 반대세력을 가혹하게 처단하였다. 특히 1982년 하마(Hama)에서 이슬람 시아파의 무슬림 형제단이 일으킨 무장봉기를 대통령의 친위대를 투입하여 진압한 사건은 ‘하마의 참극’으로 불리며 시리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²¹ 시리아 소수집단 알라위파의 집권과 국민 통합 정책에 대한 연구, 김한지

많은 비난을 불러왔다²². 그렇지만 알라위파 정권 차제가 가지고 있는 소수집단으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비교적 다수인 시아파와 드루즈를 비롯한 여타 소수종파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허용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3) 행정구조

시리아 전역은 14개의 행정구역(Governorates)²³으로 나뉘어 있다. 한 개의 행정 구역은 6개의 지역(District)²⁴로 나뉘어져 있다. 이 지역 안에 여러 개의 하위 지역(Sub-District)²⁵이 존재한다.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지사(志士)는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지명을 받으며 내각을 통해 승인절차를 거친다. 그 후에야 지역의 형식적인 선거를 통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자리에 앉게 된다. 마나티크의 총책임자는 지역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까르다하 마나티크의 공무원 수는 40명이며, 마나티크 청사에 마을 의회 기능과 법원 기능이 한꺼번에 갖추어져 있다.

4) 사법

시리아의 헌법은 1973년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다. 이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고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대통령은 반드시 무슬림이어야만 한다. 그렇지만 국교는 이슬람교로 지정하지 않았다. 시리아의 사법체계 특징은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내각 임명권, 전쟁 선포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한은 물론 국회에서 직접 법을 발의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시리아의 일반적인 사법 체계는 프랑스 모델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 가서 어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임명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며, 소송이나 다른 민사사건은 형이 확정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영어나

²² 시리아 측 추산으로는 20,000여명, 서방측 추산으로는 최대 60,000명이 이 때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²³ 또는 무하파자트(Muhafazat)

²⁴ 또는 마나티크(Manatiq)

²⁵ 또는 나위히(Nawihi)

프랑스어를 할 수 있다. 변호사 비용은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다.

알라위파 내에는 종족 자체의 사법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알라위파와 비슷한 드루즈(Druze)종파가 종족 자체의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알라위파는 시리아 국가의 사법 체계를 따르고 있다.

5) 타 국가와의 관계

(1) 미국과의 관계²⁶

2002년 미 의회 연두 교서에서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George W. Bush)는 북한, 이라크, 이란을 이른바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지목하며 이들 세 국가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임을 선포하였다. 이후 2003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미군의 침공으로 인해 제거되었고, 이라크의 이름은 악의 축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후 전(前) 백악관 대변인 에리 플라이서는 시리아를 가리켜 ‘불량배 국가’라 불렀고, 행정부의 다른 관리들은 시리아를 ‘악의 축의 이진(二陣)’ 선수로 여긴다고 말하였다²⁷.

그간 시리아의 과오를 더듬어 볼 때 그들은 적어도 미국의 시각에서는 악의 축의 이진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시리아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를 비롯한 테러리스트 약 10개 조직을 지원하고 있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한 무카바라트(Mukhabarat)라고 불리는 비밀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리아 북동부 사막지대에 핵 시설로 의심되는 구조물이 미국 위성 사진에 포착됨으로써 이스라엘 공군에 의해 폭격되기도 하는 등 미국-시리아 관계는 악화 되고 있다. 임기 말에 접어든 부시 행정부가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지만, 올해 치러질 미국 대선의 향방에 따라 향후 5년 안에 시리아 알라위 종파 소수정권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 이스라엘과의 관계

²⁶ 지구상의 어느 국가도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다. 특별히 시리아는 미국의 강패국가(Rogue State)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대미(對美)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정치 부분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따로 기술하였음을 밝힌다

²⁷ 악의 축의 발명 p. 198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역사적으로 첨예한 대립 구조를 형성했다. 시리아는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 이후 네 차례에 걸친 중동전쟁에서 선봉장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반 이스라엘 투쟁을 계속했고 특히 1967년 6월 제3차 중동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골란 고원을 점거하면서 대대적인 대립 구조 및 반 이스라엘 감정이 사회 내부적으로 깊숙이 침투하기 시작했다. 이 후, 이스라엘은 골란 고원 지역을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길 원하면서 1992년 말, 33개소의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했고, 시리아도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같은 무장 테러 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골란 고원을 둘러싼 무력 분쟁을 계속했다. 1992년 7월 이스라엘의 라빈 정권의 출범 이후, 두 나라는 몇 차례에 걸친 평화협상을 전개했지만 골란 고원을 둘러싼 양쪽의 입장의 차이가 너무 컸을 뿐만 아니라 첨예하게 대립한 무장단체와 이스라엘의 역학적 관계로 인해 이 협상들조차 결렬되고 말았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28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그 동안 터키가 중재하던 간접 협상을 마무리 짓고 직접협상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이 골란 고원의 반환 및 1967년 전쟁 당시 빼앗겼던 티베리아(갈릴리 호수 서쪽 지역에 위치한 이스라엘 도시)의 반환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29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평화적 관계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현지에서 만난 대다수의 시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심지어 현지 선교사들이 현지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을 ‘남쪽나라’ 또는 ‘디즈니랜드’라고 부르면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현지 선교사에 의하면, 동료 선교사와 통화하던 중에 우연히 이스라엘을 언급했는데 그 즉시 통화가 끊기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 시리아는 현재 독재체제의 정치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화 및 위성, 통신과 같은 사회 내부적 요소까지 정부에서 통제 및 관할 한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사건이나 정보를 통제하고 차단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자발 알 말렉(Jabal al Malek)에서 만난 알라위 종파의 종교지도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과 반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는데 그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중동에 평화가 오길 원하는데 반해,

²⁸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8/07/2008080700351.html

²⁹ Israel Today, August 2008. No. 22 p.9

이스라엘은 독단적으로 시오니즘³⁰을 앞세워서 분열을 조장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시리아의 유력한 정부 일간지 티쉬린에는 올해 8월 이스라엘 6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식에 참석한 친 이스라엘 세력인 서구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논설이 공개적으로 실렸다. 그 논설의 저자인 편집장 이삼 다리는 서구 지도자들을 제국주의적 세력으로, 이스라엘은 아랍에 심어 놓은 독버섯으로 칭하며, 서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향을 강탈하고 그 땅을 이방인인 이스라엘에게 주었다고 주장했다. ³¹

시리아와 이스라엘간의 갈등은 해결점을 좀처럼 찾기 힘들다. <Islam and Jews>의 저자인 마크 A. 가브리엘 박사³²의 말에 의하면 아랍국가들은 현재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옛 팔레스타인 땅을 당연히 아랍이 차지해야 할 아랍 땅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또한 무슬림에게 그 땅은 종교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지닌 곳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나라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말에 비추어 본다면 앞으로 이스라엘-시리아, 이스라엘-아랍국가 간의 분쟁은 아마도 아랍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차지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3) 레바논과의 관계

2008년 8월 13일 시리아와 레바논은 60년 만에 역사적인 수교협정을 맺었다. 이는 시리아가 비로소 레바논을 독자적인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는 정치적 상징이기에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 협정은 시리아가 지금까지 헤즈볼라를 지원하며 개입해왔던 레바논의 정치, 군사 등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³³

아랍 무슬림 왕조 시대(634-1094) 때 레바논이 시리아, 이집트의 아랍 이슬람 제국의 일부로 존재했던 역사적 배경 때문에 시리아 사람들은

³⁰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 민족 국가를 건설하려는 운동

³¹ Israel Today, August 2008. No. 22 p.9

³² 이집트 카이로 알-아자르 대학에서 이슬람 역사 및 문화에 대해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음

³³ 세계일보, 2008. 8.15

아직도 레바논을 시리아의 속국으로 생각한다고 한다.³⁴ 이러한 이유로 1975년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의 근거지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소탕작전에 나서자 시리아는 레바논의 평화 유지를 명분으로 시리아 정규군을 투입하여 주둔시키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이후, 레바논은 내외적으로 끊임없는 내전(Lebanon civil war, 1975-1990)을 겪었으며, 계속되는 분쟁으로 인해 결국 레바논 정부가 시리아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시리아와 레바논은 형제, 협력 및 조정조약(1991.5)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레바논 내 시리아군 주둔 문제는 이후로도 양국에 늘 분쟁거리가 되어왔다. 2005년 2월 차량 폭탄 테러로 라피크 하리리(Rafiq Hariri) 전 레바논 총리가 사망했을 당시에 시리아 군이 그 배후라는 비난이 고조되어 여기저기서 데모가 끊이지 않았고, 이 사건을 빌미로 시리아는 결국 2005년까지 주둔하고 있던 시리아 군대를 철수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정치, 군사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두 국가가 맺은 이번 수교협정은 앞으로 양국간에 많은 변화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번 협정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국경설정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영토를 다시 되찾는 일에 양국이 어떻게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두 국가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는 사안이다. 또한 이 협정을 통해 양국간의 경제적인 협력이 더 긴밀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지의 문제도 주목 해볼만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시리아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는 또 다른 의문점을 증폭시키고 있다. 레바논 내 반 시리아 세력들은 시리아가 아랍민족주의 사상과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해 결국 영토를 분리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시리아는 지금 중동을 넘어 유럽과 미국 등 서구세력에까지 외교적인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시리아가 결국은 외부로부터 받는 탄탄한 경제적 지지를 기반으로 레바논 영토에 다시금 패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낳고 있다.³⁵

6) 요약

³⁴ 현지선교사 인터뷰

³⁵ The Economist, Aug 18th 2008 "Another boost for Syria"

혼란스러운 시리아의 50-60년대 정치를 정리하고 철권정치(Iron Fisted Rule)를 실시한 하페즈 알 아사드의 집권 이후 시리아는 국가 자체가 알라위파의 소유물이었다. 아사드는 비밀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반대파를 가혹하게 처단하고³⁶ 자신의 사진을 곳곳에 걸어 놓아 개인 우상화 작업까지 시도하였다. 아사드의 통치기간 동안 시리아는 외부에 대하여 폐쇄적인 국가였다³⁷. 그러나 아사드의 사망 이후 차남 바쉬르가 대통령의 권좌에 오르면서 사회, 경제적인 변화는 물론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³⁸. 시리아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긍정적 변화와는 달리 시리아를 둘러싼 국외의 환경은 그리 밝지 못하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전 레바논 총리 라피크 하리리(Rafiq Hariri)의 암살 배후를 둘러싼 미국-이스라엘과의 갈등, 북한과의 핵 커넥션 의혹 등의 국제적 이슈들은 시리아가 한꺼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외교적 시련이다. 더 나아가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번번히 시리아의 정권 교체 내지는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시리아에게 돌아올 군사적, 외교적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역시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자 새로운 외교적 시도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란, 터키를 방문하고, 최근에는 레바논과의 새로운 외교적 관계를 세우는데도 합의하면서 그는 나름대로 본인의 정치 수완을 보여주는 기회를 갖고 있다. 또한 아사드 대통령은 아랍국가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프랑스 등 EU 회원국 수장들과의 만남을 차례로 계획하면서 서구와의 관계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의 매거진인 The Economist는 이를 두고 “아사드 외교의 주요 공략은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는데 있어 시리아를 억누르는 것보다 오히려 시리아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서구에게 각인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³⁹ 의도가 어찌되었건 시리아가 지금의 국제 정세에서 어떻게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고, 경제적인 협력을 구축해 나갈 지 또한 가장 중요한 미국과의 관계 경색을

³⁶ 일례로 1982년 하마에서 벌어진 수니파의 저항을 대통령 직속 친위대를 동원하여 진압한 ‘하마의 참극’을 들 수 있다.

³⁷ 뉴욕타임스의 컬럼리스트 토마스 프리드먼(Thomas L. Freidman)은 그의 저서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에서 한 장을 할애하여 시리아의 개방에 대해 하페즈 알 아사드 당시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였다.

³⁸ 시리아 의회 전체 250명의 의원 중 178명이 초선이었던 2003년 의회선거는 이 사실을 입증할 좋은 예이다.

³⁹ The Economist, Aug 18th 2008 “Another boost for Syria”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 더욱 주목된다. 시리아로서는 현재 정권의 운명을 건 선택에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4. 사회분야

1) 개요⁴⁰

시리아 사회는 이중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시리아에서는 ‘정부를 절대 믿지 말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정부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나타낸다. 실제로 시리아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대단하다. 대표적으로 부패와 인권 탄압을 들 수 있다. 시리아 내에서 행해지는 부정부패는 범칙금을 면하기 위하여 교통경찰에게 건네는 사소한 뇌물에서부터 막대한 규모의 밀수를 눈감아 주는 대가성 뇌물까지 상당히 광범위하다. 또한 시리아의 인권탄압은 심각한 실정이다. 중동감시단(Middle East Watch)와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은 모두 시리아에는 수천 명의 정치범이 있으며 이들은 거의 재판을 받지 않고 수감되어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변호사나 가족들과의 접견이 금지되며, 단지 정부에 반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일상적인 고문 및 가혹행위에 시달린다고 한다.

시리아 정부의 어두운 면과는 대조적으로 시리아 시민들은 비교적 매력적이다. ‘결혼은 운명이고, 숙명이다’ 라는 시리아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과 결혼을 매우 중요시하며 가장 즐겨워하는 대화 주제가 가족에 관한 이야기일 정도로 가족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살아간다. 또 ‘사람이 없는 곳, 그곳이 지옥이다’ 라는 속담도 있는데 이는 시리아인들이 서로 모이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시리아인들은 친구 집에 방문하여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것이 일상적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길거리의 아랍 식 전통 카페 같은 곳에서 모여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2) 가족구조

알라위의 가족구조는 대 가족과 핵 가족이 혼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

⁴⁰ 알라위파 사회의 모습이 시리아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에 크게 다르지 않기에 시리아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을 하였음을 밝혀둔다.

취업, 학업, 결혼 등을 이유로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을 제외하는 거의 모든 가족이 한 마을에 같이 살면서 각 가정마다 따로 집을 두고 생활하는 형태이다. 이외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 등은 보통의 시리아 가족 형태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종파 공동체 구조

알라위파 종족 내부로는 크게 4개 부족으로 나뉜다⁴¹. 각각의 부족장은 집단을 통치하는 역할 보다는 다른 집단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알라위 공동체는 주로 가족중심, 혈연중심의 관계로 이어져 있으며, 이러한 가족 공동체의 결속력은 매우 끈끈하다. 전 대통령 하파즈 알 아사드는 타 종파의 반란을 우려해 자신의 친인척을 국가의 요직에 등용하였다. 이들은 국가의 요직을 차지⁴² 하며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4) 주변 종족 및 이웃과의 관계

알라위 종파는 시리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밖에 되지 않지만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위시한 국가의 권력중추를 구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이슬람 수니파와의 갈등이 존재한다. 1970년 집권한 하페즈 알 아사드 대통령의 재임 초반에는 수니파의 과격 단체인 무슬림 형제단의 주도 아래 60명의 알라위파 고급 장교들이 사망한 1979년 알레포(Aleppo) 포병 학교 공격, 같은 해 라타키아 지역에서 벌어진 수니파의 무력 충돌, 1980년 아사드 대통령 암살 기도 등이 있었으나 1982년 ‘하마의 참극’ 이후 무슬림 형제단의 세력을 크게 약화되었다. 반면, 비교적 소수 종파인 드루즈(Druze)나 쿠르드(Kurd)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같은 소수종파로써의 동질감에서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사드는 정권을 위협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했으나 일반적인 무슬림들에 대해서는 유화정책을 펼쳤다⁴³. 알라위파가 주로 거주하는 라타키아

⁴¹ 4개 부족은 칼비야(Kalbiyah), 카이야틴(Khaiyatin), 핫다딘(Haddadin), 마타위라(Matawirah)가 있으며 이들은 라타키아 지방의 교외에 집중 거주한다.

⁴² 1980년 개최된 바트당의 시리아 지역 회의(Regional Syrian Congress of Ba'th Party)의 구성원 75명중 30명이 알라위파 군 장교 출신이었으며, 현재 시리아의 통신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시리아텔(SyriaTel)의 실 소유주는 대통령의 사촌이다.

⁴³ 시리아 소수집단 알라위파의 집권과 국민통합 정책에 대한 연구 p. 90

시에서는 이웃에게 무관심한 대도시적 특성이 드러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이웃의 사이가 매우 친밀한 편이다.

5) 사회적 모임 및 단체

시리아의 마을마다 세워져 있는 문화센터에서 다양한 모임들이 존재한다. 까르다하의 문화센터에서는 주로 청년들이 많이 모인다. 남성들은 축구와 같은 운동 모임에 참여하기도 하고, 아랍의 전통 악기를 배우는 수업에도 참여하여 악기를 배우기도 한다. 여성들은 주로 실생활과 많은 관련이 있는 십자수 등의 공예품 만들기를 한다. 전국적인 규모의 모임으로는 혁명 소년 조직(Revolutionary Youth Organization), 학생연합(Union of Students), 여성조직(Women's Organization), 농민연합(Peasant's Federation), 노동조합연합(General Federation of Trade Unions) 등이 존재한다. 이 모임들은 모두 정부의 감시아래 있으며 정부로부터 활동비를 지급받기도 한다.

6) 여성의 역할

이슬람 권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진다. 시리아에도 이러한 경향이 있었으나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 중이다. 시리아 전국적으로는 교육과 의료분야에서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남성들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정치에도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⁴⁴. 그러나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 공공기관과 외국계 기업을 제외한 일반 기업에서는 웬만하면 여성을 채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등 일반적인 인식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까르다하에 거주하는 알라위 여성들은 농촌 사회의 특성상 전업 주부의 비율이 높으며, 도시보다도 오히려 더 여성의 지위가 낮은 편이다⁴⁵. 그렇지만 여타 종파 여성들과는 달리 알라위 여성들은 히잡이나 부르카와 같은 이슬람 의상을 착용하지 않으며 자신의 의사표현에 있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알라위 여성들은 일반 무슬림 사회에서는

⁴⁴ 현재 국가 의회 250명의 의원 중에 30명의 여성의원인 활동하고 있으며 의회 부의장도 여성이다.

⁴⁵ 우리 조사 팀을 초대해 주었던 가정의 가정은 본 조사팀이 식탁을 정리하려고 하니깐 'women do everything in Syria'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여성이 착용 할 수 없는 민소매 셔츠나 탑(top)류의 옷을 많이 착용하는데, 이는 알라위 종교에 여성의 구원이 약속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인 구속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7) 요약

알라위 지역사회의 분위기는 전체적인 시리아 지역사회와 비교해 보았을 때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도시와 농촌 지역사회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같은 종파라 할지라도 거주하는 지역 환경에 따라서 사회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 지역인 까르다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써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돈독하고 이웃간에도 교류와 왕래가 잦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 팀의 조사결과 알라위파의 여성들은 일반적인 무슬림 여성보다 옷차림이나 행동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이는 그들의 종교에 여성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인 속박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5. 경제분야

1) 개요

시리아의 1인당 GDP(Gross Domestic Production)는 4,500\$⁴⁶로 조사대상 229개국 중 148위에 위치하여 아직은 저 발전국가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리아의 경제는 전체 산업 소득의 23%를 차지하는 농업과 27%를 차지하는 제조업이 이끌고 있다. 최근에는 자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관광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정부에서 적극 육성하고 있다.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시리아는 경제 부문 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6년 발표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그러한 조치의 일환이며 이를 통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리아의 경제활동의 자유는 조사대상 157개국 중

⁴⁶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sy.html#Econ>를 참조

142위 47 에 속하고 있는 등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48 국민경제의 유효수요는 충분한데 비해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2) 산업구조⁴⁹

라타키아 주의 주요산업은 항만업과 관광업 그리고 농업이다. 라타키아 항은 시리아에서 유일하게 대형 컨테이너 선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로써 시리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리아의 대(對) 유럽 수입 및 수출이 주로 이 항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제 물동량을 그리 많지 않으며 항만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Blue Beach라 불리는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라타키아의 관광업은 여름철이 성수기 이다. 시리아 전역은 물론, 사우디 아라비아와 요르단 등 외국에서도 여름 휴가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이 이곳을 찾는다⁵⁰. 그 때문에 여름철 라타키아의 부동산 시세는 평소의 2-3배 가까이 오르기도 하며, 시내의 물가 역시 10-20%의 상승률을 보인다고 한다. 라타키아의 관광업은 단지 해변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위치한 우가리트(Ugarit) 문명 유적, 십자군 전쟁 당시의 성채 관광 등이 있다. 라타키아 주의 농업은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이루어 진다. 시리아인의 식탁에서 빠져서는 안될 올리브와 청과류를 주로 재배한다. 이곳의 과일들은 근처의 대도시인 홈스, 하마, 알레포 등으로 판매된다.

3) 발전수준

(1) 물가

47 외교통상부, 시리아 무역투자정보 1.

48 시리아의 금융 서비스 시장은 2005년에야 민간은행 설립이 허가 될 정도로 경쟁력이 취약하다. 때문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리아인들은 대부분 시리아 은행에 현금을 예금하기보다는 인근의 레바논 계 은행을 선호한다.

49 알라위 종파만의 특별한 산업, 특산물을 존재하지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기에 알라위파가 주로 많이 사는 라타키아의 산업을 설명하였음을 밝힌다.

50 최근 라타키아의 해변가에는 카타르 정부에서 진행하는 2조원에 달하는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레바논을 대신하여 라타키아가 새로운 걸프인들(Gulfies)의 휴양지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수년간 시리아의 물가성장률은 5%대로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2007년, 2008년을 겪으며 시리아 물가는 10%이상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⁵¹ 물가 상승은 최근의 고유가 추세뿐만 아니라 이라크 전쟁의 여파로 이라크 난민의 유입에 따른 부동산값 상승과 걸프 지역에서의 송금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이 한꺼번에 작용하여 벌어진 일로 해석된다.

또한 음식료품값 급등, 유가 보조금 축소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실질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2008년 초 시리아인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으나 현재는 안정단계이며, 고 물가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가상승과 시리아의 개방화 정책에 따른 서구문물 유입, 빈부격차의 가속화 등으로 인해 시리아인들의 마음이 점점 각박해지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시리아를 방문했을 당시 택시를 타거나, 집을 구하러 다닐 때면 사람들이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하여 우리를 당황케 한 적도 종종 있었다.

(2) 지역별 발전 수준

시리아 경제에 관하여는 믿을 만한 통계수치를 얻기가 매우 어려우며, 정부가 독재적이고 비밀스럽기 때문에 공식적인 데이터가 출판되더라도 그것이 사실을 반영하는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 현재 시리아 내에 지역별 소득이 공개되어있는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서서히 이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⁵². 알라위 종파가 주로 거주하는 라타키아 지역의 평균소득은 시리아 평균보다 높다고 추정된다⁵³. 이는 전 대통령 하페즈 알 아사드가 자신의 출생지에 비교적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의료 혜택을 통해 인구가 증가하고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그 지역 일대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

51 KOTRA 시리아 경제 및 시리아 교역동향(2008.06.10)

52 현지 주민 인터뷰 및 현지 교민 인터뷰

53 론리 플래닛(Lonely Planet) 참고

가 되었다.⁵⁴ 그러나 아사드 정권의 이러한 태도도 아들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취임하며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팀은 시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에서 지역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독자적인 개발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이곳만의 특별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독자적인 개발 시행 권한 역시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4) 최근 동향

시리아는 2006년에 시행된 제10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로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은 재정 건전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수입 자유화 등 ‘경제의 다양화 및 개방화’가 큰 골격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⁵⁵

이를 위해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경제적 어려움을 대 EU 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구축을 통해 타개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리아 정부의 정책 추진 여건은 매우 불리한 상태이다. 먼저 시리아 내 핵 시설물 보유 여부를 둘러싼 미국-시리아간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대 시리아 무역제재 조치는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EU 회원국들이 시리아의 이러한 시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미지수이고, 무엇보다 국내적으로 개혁에 대한 국내 집권 바트당 내부의 반감, 행정 시스템 낙후, 개혁 추진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시리아 정부의 계획은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5) 요약

2000년 바쉬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시리아 경제는 미래를 향해 더디지만 서서히 전진하고 있다.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리아 경제의 발목을 잡는 비효율성을 먼저 제거해

⁵⁴ 김한지, “시리아 소수집단 알라위파(Alawites)의 집권과 국민통합 정책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외대), 제 27-2호(2007)

⁵⁵ KOTRA 시리아 경제 및 시리아 교역동향(2008.06.10)

야만 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조직이 몹시도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점, 상업적 민간은행의 영업이 허용된 지 불과 5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 20%에 육박하는 실질 실업률, 국가 예산의 80%가 비밀경찰, 군대, 경찰 등 생산과는 관련이 없는 분야에 쓰이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시리아에 대대적인 공공부문 개혁이 필요함을 여실히 드러내준다. 또한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반면 소수의 부유층은 계속 부유해지면서 빈부격차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2006년 발표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사회주의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로의 이행’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시리아가 미국의 대 시리아 무역제재조치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EU 회원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또한 고유가 추세와 전세계적인 불황의 파고를 타고 시리아의 경제가 도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6. 생활분야

1) 개요

시리아의 생활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경제적인 요소나 독재정권 구조를 가진 정치적인 요소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평화롭고 안정적인 편이다. 주식으로 이용되는 음식들, 호브즈, 라반, 흠무스 등의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공급이 이뤄지며 다른 아랍국가에 비해 여성차별이 심하지 않고 그 복장과 생활 역시 많이 개방되고 있다. 다른 중동 국가보다 낙후된 점 등을 미뤄볼 때, 의료나 보건에 관련된 제도와 의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2) 식생활

(1) 주식

① 호브즈

시리아 전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식이다. 한국인들에게

는 특히 걸레빵으로 불리는 빵으로 식사 때마다 개인 그릇 옆 식탁 위나 무릎 위에 한 두 장씩 둔다. 누룩이 없어 부풀리지 않고 구운 밀가루 빵으로 야채를 싸먹기도 하고 유제품, 잼 등을 발라 먹기도 하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빵이다.

② 마끌로베

밥을 할 때 가지, 감자 등을 함께 넣고 올리브 기름과 함께 삶은 음식이다. 한국 음식과 비슷한 느낌으로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다.

③ 라반

우유를 발효시켜 만든 요거트이다. 빵이나 밥과 함께 먹는데 시큼한 맛이 강하다. 잼을 적정량 섞어서 먹으면 한국의 요거트와 비슷한 맛을 느낄 수 있다.

(2) 접대 음료

① 샤이(Shai, 홍차)

손님을 초대할 때나 몇몇 사람이 모일 때면 반드시 등장하는 홍차이다. 막 끓인 뜨거운 채로 가지고 와서 각 사람의 찻잔에 부어준다. 설탕을 많이 넣어 달게 마시는 것이 특징이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이 마신다. 잔이 비워 있으면 계속 권하기도 한다.

② 카와(Qahwah, 아랍 커피)

굉장히 진한 아랍식 커피로 현지인들은 설탕을 넣지 않고도 많이 마신다. 커피가 매우 진하므로 밀크커피에 익숙해진 한국인에게는 좀 쓸 수도 있다. 보통은 설탕을 넣을 것인지 물어본다.

(3) 식사예절

일반적으로 주인 쪽에서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는 아주

많은 양을 대접한다. 식사를 대접 받는 손님이 주인이 차려놓은 음식을 너무 적게 먹으면 주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손님 입장에서는 너무 적게 먹는다는 인식을 주지 않을 정도로 먹는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다이메’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 먹었습니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면 주인 쪽에서 ‘싸하’라고 응답하는데 이는 ‘건강하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3) 의복

(1) 평상복

① 남성

까르다하 다수의 평상복으로는 시리아의 어떠한 도시보다도 캐주얼하고 자유로운 옷이 관찰되었다. 특히 나라 어느 곳에서도 쉽게 볼 수 없었던 반바지가 까르다하의 접대 받은 집 안에서는 거의 매 집마다 볼 수 있었고 집 밖에서도 흔하지는 않지만 더러 볼 수 있었다.

② 여성

까르다하에서는 여성들이 무슬림이라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편한 옷들, 멋진 옷들을 평상복으로 입고 다니는 것이 관찰되었다.⁵⁶

현지 사역자의 말에 의하면 알라위 여성들은 종교 교리의 내세관에서 구원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유로운 모습이 현세를 살고 있는 여성들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⁵⁷

(2) 전통 의상

① 남성

⁵⁶ 상의로는 반소매뿐만 아니라 민소매 옷을 입고 다니는 여성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

⁵⁷ 그러나 여성의 구원이 배제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인 무슬림의 공통적인 교리이므로 이것은 알라위 여성들만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자발 알 말렉의 셰크⁵⁸들은 머리에는 하얀색 얇은 천으로 된 터번을 두르며 상의는 안쪽에 굵은 실로 짠 셔츠조끼를 여러 겹 입고 겉에는 어두운 색 계열로 민무늬 코트 또는 재킷을 입는다. 바지도 상의와 같은 색의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 입었다. 실내에서는 터번을 풀어 목에 감아 두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이러한 복장들은 높은 산의 강한 바람과 추운 날씨를 반영한 기능적인 복장으로, 셰크라고 반드시 전통 의상을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셰크들과 일반 노인들의 전통 옷의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② 여성

흰색 민무늬의 얇은 히잡을 쓰고 있다. 상의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불규칙한 무늬의 원피스 위에 반코트 형식의 두꺼운 실로 만든 재킷을 걸친다. 하의는 한국의 남자 한복의 하의와 흡사한 통이 큰 바지를 입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체크무늬가 들어가고 발목부분의 신발 위에서 끈을 대어 묶게 되어있으며, 일어섰을 때 원피스가 발목까지 내려와 바지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된다. 역시 산지에 근거지를 둔 알라위의 특징을 따라 방한의 의미가 큰 복장이다.

(3) 장신구

알라위만의 특이한 녹색 손목 장신구인 킬리아가 있다. 이것을 차고 있는 사람은 알라위임을 알 수 있는데 성지(Holy Place)에 가서 기도 드리는 것을 대신하는 도구라고 한다. 이들의 성지인 선조들의 무덤에 가면 녹색 천으로 그 무덤이 덮여있는데 그 천 중에 일부를 찢어서 알라위 사람들에게 준다.

4) 주거

까르다하의 가옥으로는 낮은 연립주택이나 전원주택이 많으며, 외각에는 연립주택단지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대체로 거실 하나, 응접실 하나, 부엌 하나, 방 몇 칸, 전통 방식 화장실 하나, 수세식 화

⁵⁸ 종교 지도자 혹은 장로 등을 지칭하는 용어. 인터뷰 결과 알라위 종파는 남자만이 셰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장실 및 욕실 하나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전원주택은 넓은 마당이 있어서 손님을 접대하거나 아이들이 놀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인다.

5) 위생의료

(1) 위생 정책

시리아에서는 정부가 병원 시설에 대해 투자를 하며, 사립병원 은 물론이고 정부에서 지은 공립병원까지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치료비는 모두 무료라고 한다. 또한 약품은 정부에서 각 도시로 보급하는 체계로 운영되며 까르다하의 경우 라타키아에 있는 management of health라는 정부 산하 기관에서 약을 보급받는다고 한다.⁵⁹ 유사시의 응급 전화번호는 110이다.

(2) 위생 시설

까르다하의 외각에는 까르다하 알 바시르(Qardaha al Basir) 병원이 하나 있다. 병동이 6개이고 병실이 50개인 이 병원은 전문의 66명과 인턴 15명, 간호사가 약 300여명, 간병인이 약 100여명, 응급차 4대 보유하고 있는 규모의 병원이다. 이 병원의 한 의사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이 병원의 시설은 별 1-2성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며 시골이기 때문에 요양 치료를 오는 도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또한 까르다하에는 한 개의 보건소도 있다.

(3) 위생 관념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시골마을이기에 환경 상태에 대한 위기감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침폐수가 고여있고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등의 모습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고,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않으며 모인 대부분의 쓰레기는 소각처리 한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알라위 사람들의 위생 관념이 잘 형성되지 않았다고 짐작해 볼 수 있

⁵⁹ 까르다하 알 바시르 (Qardaha al Basir) 병원에서 의사와의 인터뷰 참조

다.

(4) 물 부족 현상

수도국이 무하파자(도(都))단위로 있기 때문에 라타키아에 수도국이 있다. 까르다하에는 그 지부가 존재하며 물은 우물, 강, 바다를 통해 공급된다. 물이 비교적 풍부한 편이지만 까르다하에서 본 팀이 한 집에 살 때 예,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한 두 번씩 물이 끊기는 것을 경험했다.

6) 주요 교통수단

(1) 자가용

시리아는 정부에서 자동차 구입을 규제해왔지만 2006년부터 그 규제를 풀었는데 지금은 다마스커스를 비롯한 여러 주요 도시에서는 교통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대부분 한 가구 당 한 대의 차를 보유하고 있고 따라서 가장 흔한 교통수단은 자가용이라고 할 수 있다.

(2) 대중 교통

시리아의 작은 버스라 할 수 있는 세르비스(Service, Micro bus)는 한 지역 이내나 가까운 시외를 담당하는 교통수단으로 현지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대중교통수단이다. 비용은 한 지역 이내의 구간에서 한 자리당 10리라, 가까운 시외는 그 거리에 따라 책정되며, 승객이 자리를 차지한 만큼의 돈을 내야 한다. 또한 세르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은 택시를 이용하거나 세르비스를 임대하여 이동하기도 하며 가격은 세르비스보다 비싼 편이다. 시리아에도 역시 버스(Bus)가 있으며, 시외로 이동 시에는 큰 VIP 버스를 이용한다. 비용은 거리와 시외버스 회사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대체로 비싼 편이다.

7) 전기보급 및 대중매체

(1) 전기 보급 상황

까르다하의 전기 보급은 원만하지만 하루에 한 두 번씩의 정전이 있다. 정전의 시기는 저녁 때나 밤중일 때가 많다.

(2) TV와 위성방송 보급률

TV는 한 집에 한 대 꼴로 있는 편이다. 위성방송은 시리아 전역에 보편화 되어 있는데 까르다하도 예외가 아니며 그 채널들 역시 위성방송을 설치할 때 선택할 수 있다. 보통 1000여개의 채널들이 나오며 설치 비용은 5000리라(한화 약 10만원) 정도이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다.

(3) 컴퓨터와 인터넷

까르다하에서 컴퓨터가 많이 보급 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지만 다만 현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컴퓨터를 가진 대부분의 집에서 모뎀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빠른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카페에 가는 것이 좋고 인터넷 카페는 대학가나 시내에서 찾을 수 있는데 가격은 한 시간당 10리라 정도이다.

8) 요약

알라위 사람들의 생활은 시리아 사람들의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후진국이지만 많은 알라위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개선 되어 할 점이 관찰되었는데 예를 들면 물과 전기의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점, 분리수거가 이뤄지지 않는 점등이 그 예이다. 또한 알라위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큰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친절하며 집단적으로 모여서 거주하기 때문에 큰 범죄나 사건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편이다.

7. 문화분야

1) 개요

시리아는 중동의 여유롭고 느긋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한국적인 동양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일례로 길거리에서 ‘알리, 알리’ 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 뜻은 ‘빨리, 빨리’로 우리가 가진 문화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른을 공경하고 가족과 친척의 테두리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해결하는 것 역시 우리의 문화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체면문화와 대접문화가 발달했다고 한다.

2) 특수절기

(1) 공휴일

국가 공휴일인 4월 17일 독립기념일, 3월 8일 바트(Baath) 혁명일과 무함마드(Muhammad)의 생일이 대표적인 명절이며 이슬람의 명절을 지키기도 한다. (단 이 경우는 확인한 바가 없어서 확신할 수 없다. 문헌조사에 따르면 꾸란의 많은 부분을 은유적으로 해석해 일반 무슬림들처럼 꾸란대로 정확히 지키지는 않는다고 한다.)

(2) 축제

현지인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중요한 절기는 아니지만 크리스마스를 기념한다고 한다. 실제로 본 팀이 살던 집의 거실에서도 철거하지 않은 크리스마스트리를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예수도 선지자이며 모든 선지자들은 동일한 지위라고 주장하는 것에 근거를 둘 수 있다. 또한 축제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춤추는 것을 좋아하며 대중적인 아랍음악을 즐겨 듣는다.

3) 예절

(1) 인사법

만날 때 가장 일반적이고 공식적인 무슬림들의 인사인 ‘쌀라무 알레이쿰’, 혹은 조금은 가벼운 ‘마르하반’ 이라고 인사하고, 헤어질 때 ‘마아 쌀라마’ 이라고 인사한다. 특별히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볼에다 서로 입을 맞추는 인사를 하는데, 동성간에는 오른쪽 볼 한번, 왼쪽 볼 한번, 다시 오른쪽 볼에 한번 입을 맞추고, 이성간에는, 오른쪽 볼에만 세 번 입을 맞춘다.

또한 자신의 겸양을 표현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에 손을 살짝 대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겸손하게 반가워함을 표현하기 위해 손등을 입술에 대고, 이마에 대는 인사를 하기도 한다.

(2) 금기

이것은 이슬람 법에 어긋남, ‘죄(sin)’를 의미한다. 그런데 웨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알라위에게 있어서 그런 금기사항은 체계적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래된 관습처럼 일상 생활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금기 시 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규제를 받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알라위 사람들에게 정치에 대한 언급들에 민감하다. 대통령 가문인 아사드를 찬양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조금이라도 비방이나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시리아 전역에는 비밀경찰들이 항상 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파즈 아사드의 출생지인 까르다하에서는 특히 더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4) 대중문화

(1) 청소년 문화

인터넷 보다는 TV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TV드라마의 주인공이나 가수 등을 좋아하고 따라 하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2) 캠퍼스 문화

까르다하 알라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대학교는 까르다하에서 가장 가까운 라타키아의 티슈린 대학교이다. 많은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하며, 방학에도 보충 시험이 있어서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 등을 관찰 할 수 있었다. 티슈린 대학교는 라타키아 도심과 인접해있어서 주변에 카페와 음식점이 많고 수업이 마친 후 많은 학생들이 도심에서 여가시간을 보낸다.

5) 관광지

(1) 전 대통령 하파즈 아사드의 무덤

까르다하는 전 대통령 하파즈 알 아사드의 출신지이자 현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의 출신지이다. 알라위 사람들은 2000년에 죽은 하파즈 알 아사드를 우상화 하는 동시에 선지자에 준하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정부는 하파즈 알 아사드의 무덤을 까르다하에 세우고 그것을 모스크로 만들었는데, 그곳은 누구나 방문해서 관광할 수 있다.

(2) 자발 알 말렉(Jabal al Malek)

까르다하의 중심에 위치한 산으로 알라위 종파의 성지이자 근원지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까르다하 및 다른 도시까지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으며 많은 알라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하루 동안 서비스를 전세 내야 갈 수 있다.

6) 요약

일반적으로 시리아 사람들은 손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극진히 환영하며 대접하는데, 이것은 수세기에 걸쳐서 손님은 신령한 진리(sacred truth)로 여기는 무슬림 전통 때문이다. 실제로 현지인들은 안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팀을 반갑게 환영하고 맛있는 음식과 샤이(Shai) 등으로 대접해주었는데 이것 역시 무슬림의 대접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지인들에 의하면 미국과 서방세계에 대한 막연한 반감은 존재하지만 헐리웃 영화와 미국 드라마 등은 즐겨 본다고 한다.

선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시리아와 한국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개발시켜서 친숙하게 현지인들과 접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슬림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중심적인 문화를 고려할 때, 일대일로 접근하기 보다는 접촉점을 가족, 또는 또래 친구들의 무리로 넓혀서 복음의 접근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중문화에 민감한 청소년에게 접근할 때에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 숙지한 뒤에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8. 교육분야

1) 개요

시리아는 수능 시험인 바칼로리야(Bachelor)의 성적대로 의대, 공대 등의 순으로 진학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입시와 유사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중동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시리아 역시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지만 알라위 종파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열을 보이고 있었고 이것은 정치, 사회적인 역학 관계 속에 형성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알라위 종파가 많이 입학하는 라타키아(Lattakia)의 티슈린 대학교는 전국 상위 4-5위에 해당하는 대학으로서 학생들은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는데 특히, 공대가 특화되어 있다.

2) 현황

까르다하(Qardaha)에는 7개의 초등학교가 있으며,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수학, 과학, 컴퓨터, 미술, 수영 등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교실에는 20-25명의 학생이 있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공휴일로 학교에 가지 않으며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6월부터 8월까지 방학이다. 또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교육비 전액을 나라에서 부담한다.

3) 교육에 대한 인식

소수종파로서 알라위 학생들은 또 다른 소수종파인 드루즈 종파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열을 보이고 있었다. 과외로 수업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학업에 관련된 이야기 보다는 스포츠, 연예, TV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 그 원인은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까르다하(Qardaha)가 도심이 아닌 시골에 위치하고 있고 학교를 졸업한 후,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의 가게를 대물림 하는 식의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원인은 알라위 종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즉, 알라위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아사드 대통령의 출신 종파로서 대통령과의 연줄로 인해 우수한 대학의 학위가 없어도 사회로의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지에서 만난 대부분의 알라위 청소년들은 군인이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했다. 이것은 드루즈 종파의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및 의사와 같은 전문직을 희망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전문직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알라위 사람들은 정치적인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4) 대학 (대학조사표 참조)

(1) 대학 현황

앞에서 언급했듯이 알라위 사람들은 티슈린 대학교에 많이 간다. 티슈린 대학교의 학생 수는 3~4만 명에 달하며 총 15개의 단과대(의과, 공과, 약과, 경제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영어과, 프랑스어과 등)를 포함하고 있다. 학비는 1년에 3000리라(한화로 약 6만원)의 등록금과 시험 등의 여비가 들고 실력에 따른 장학제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리아에 있는 여느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의대와 공과대가 높은 경쟁률을 가지며, 샴(Cham)이나 홈즈(Homs)와 같은 타지에서도 많은 학생이 온다고 한다.

(2) 진로

졸업 후, 학생들은 해외유학은 많이 선호하는 편으로 선진화된 두바이나 서방지역으로 가길 원한다. 그 이유로는 영어를 사용할 수 있고 현지에서는 전공을 살려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재정 상의 이유로 많이 가지 못한다. 또한 많은 학생들은 가게를 물려받거나 결혼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5) 요약

알라위 종파의 교육열은 크게 높지 않지만 알라위의 교육은 남녀 평등하고, 많은 여성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대학 졸업 후에는 이슬람 국가인 시리아의 특성상 여성으로서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따라서 대다수의 교육 받은 여성은 사회적으로 차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청소년들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했다. 선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정교사나 학원 선생님이 되는 것이 유력한 복음의 접촉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 학교 선생님은 불가능 하지만 가정교사로 접근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학생을 만나고 그 집에 갈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기 때문에 복음의 접촉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이 혼자 학원을 설립할 수 없지만 현지인과 동역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 - 컴퓨터, 영어, 수학- 등을 과외로 보충하는 방법으로 현지인에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립대학의 경우, 유학생의 신분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아랍어를 공부하면서 현지인과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9. 종교분야⁶⁰

1) 개요

(1) 개관

알라위 종파는 시리아 전체 중 10% 미만의 소수종파로 12이맘파의 한 분파로 분류되지만 종교적인 성향은 극단주의적 성격을 지닌 비주류 무슬림이다. 그들은 시리아의 서북부 해안 지방인 라따끼아(Lattakia)에 위치한 자발 알 말렉(Jabal al Malek)이라는 산을 종파의 근원지로 삼고 그 주변에 밀집해서 자신들의 종교의 특수성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라따끼아(Lattakia)에는 99.9%의 알라위 종파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

⁶⁰ 알라위 종파의 특성상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은닉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알라위 종교에 대한 본문 내용의 대부분은 논문(황병하, 나씨르파와 알라위파의 기원과 교리, 한국이슬람학회 논총, 1997.)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을 명시하는 바이다.

들은 대부분 친족과 혈연관계로 강한 씨족 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들 교리의 중심 내용은 알리의 신성화와 신의 육체구현 및 윤회사상, 부활의 부정과 심판 이후 보상과 처벌의 부정 등이 있다. 또한 삼위일체를 믿고 희생제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여러 명의 선지자를 숭배하고 라마단을 지키지 않는 등의 정통 이슬람과는 다른 독특한 교리를 고수하고 있다.

(2) 역사

알라위교는 종교적 기원이 분명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9세기 무렵 시아파의 12이맘파에서 분리된 나씨르파(al-Nasiriyya)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추정한다. 나씨르 파의 명칭은 이븐 나씨르(Ibn Nasir)라는 사람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이븐 나씨르는 스스로를 11번째 이맘과 연결시켜 무함마드의 대리인(Al-Baab)이라고 주장했고 후에는 자신을 신의 사자이자 예언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 후 이븐 나씨르와 그의 추종자들은 시리아의 알레포에서 종교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갔고 10세기 초 함단(Hammanid)왕조를 세웠지만 1세기의 전성기를 뒤로하고 1004년 함단 왕조는 몰락하게 된다. 이 후 이븐 나씨르의 후손인 알 타바라니(al-Tabarani)는 시리아의 서북부 해안 라타키아로 이주했고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지냈다. 이후에 나씨르파(알라위파)는 함단 왕조의 후손에게 계승되어 추종자들과 함께 점차 세력을 확장시켰고 종교로서 기반을 잡게 된다.

2) 종교현황

(1) 주 종교: 알라위 종교

(2) 종교시설: 자마(모스크), 무감(무덤)

(3) 종교 지도자(쉐크): 이맘(지도자), 하띠마(설교자), 무아진(애잔하는 사람)

3) 이단종파의 특성

(1) 행동양식

① 축제

알라위의 축제는 기독교 및 시아파, 마기교와 무슬림의 축제들과 혼합형태로 이뤄져 있다. 이드 알 아드하(Id al Adha)⁶¹ 와 이드 알 피뜨르(Id al Fitr)⁶²는 축제일로 정해서 기념하지만 전자는 이슬람력 12월 10일이 아니라 12월 12일에 행해지고, 후자는 라마단 이후가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시행되는 단식이 끝난 후에 행해진다. 기독교와 관련해서는 크리스마스와 오순절 및 공헌제(동방박사 세 사람이 베들레헴의 예수 앞에 나타난 날; 1월6일)를 지킨다. 또한 시아파와 관련된 축제는 1월 10일의 아슈라르 날(id Ashura), 3월 9일의 제2차 가디르의 날과 8월 15일의 샤으반의 추모제등이 있다.

② 포교활동

알라위 종파는 소수종파로서 역사적으로 박해당했기 때문에 교리의 비밀을 지키고 유지하며 종파를 보호하고자 비밀스럽게 포교활동이 이뤄진다. 포교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은 세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무지의 단계(marhalat al juhhal)로 교리의 비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훈련시키고, 두 번째 단계는 미 확정의 단계(marhalat al-ta'liq)으로 일 단계에서 선발된 자가 쉼크의 지도 하에 알라위의 교리를 1-2년간 익혀가는 시기이다. 세 번째 단계는 청취의 단계(marhalat al-sama')로서 이 단계에서는 교리의 핵심을 습득할 수 있는 시기로 비밀이 전수되는 단

⁶¹ 이슬람력(歷) 제12월(즈르히저) 10일에 지내는 이슬람교의 축제로서 희생제라고도 한다.

⁶² 이슬람력(歷) 제10월(샤우왈)의 첫날에 하는 이슬람교의 축제로서 '소제(小祭)' 또는 사다카제[布施祭]라고도 한다. 단식월(斷食月) 라마단이 끝나는 날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행의 성취를 풍부한 음식이나 성대한 장식으로 축하한다

계이다.

(2) 종교의식

① 예배

알라위종파는 전통적인 이슬람의 예배 형식이 아닌 다른 형태의 예배를 수행하거나 또는 형식을 폐지시킨다. 즉, 일부 학자들은 알라위의 예배를 종파의 특수성의 표현으로 해석하는데 금요일 합동예배를 의무사항으로 여기지 않는 것과 이맘 외에 끼블라(qibla)로 예배 방향을 정하지 않는 것 등이 그 예이다.

② 단식

알라위는 전통적인 라마단을 지키지 않고 다른 해석을 통해 단식을 하는데 새벽 예배 전에 단식을 시작하여 해질녘인 마그립 예배에 단식을 깨는 것을 행한다. 일부 알라위 사람들은 단식을 삶에서의 절제로 해석하여 여성에 대한 금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③ 꾸란

알라위는 정통 꾸란을 사용하지만 그것보다는 알리 본 아비 딸립의 신격화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60여 절로 구성된 『총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④ 신앙고백

알라위에게 신앙고백은 삼위일체에 해당하는 알리, 무함마드, 초대 이맘인 술라이만 알 파리시의 첫 자를 따서 아인, 밌, 씬을 고백하는 것을 한 공식이라고 한다.

(3) 종교적 개념

① 알리의 신격화 및 육체구현

알라위는 성육신을 믿으며 그 최후의 구현은 알리 본 아비 딸립(이맘 알리)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이맘 알리를 신격화하여 마으나(al-Ma'na; 의미)로 주장

했는데 이것은 신이 현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은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칭하고 이맘 알리의 성육신을 주장한다.

② 삼위일체론

알라위는 이슬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의 핵심인 삼위일체론(성부, 성자, 성령)과 매우 유사한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데 이들의 삼위는 알리, 무함마드, 술라이만 알 파리시(Sulayman al-Farisi)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의 신앙고백은 각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아인, 밌, 신’의 세 자음이 한 구성을 이루는데 이 구호는 사실 ‘마으나(의미), 이썸(이름), 밍(문)’을 상징한다. 즉, 알리는 신과 같은 절대적 의미를 갖는 존재이고 무함마드는 외면적인 이름이며, 술라이만은 마으나 즉, 의미에 이르게 하는 문을 의미한다.

③ 윤회사상

알라위는 인도 철학과 불교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원래 인간은 별이었는데 실수로 인간의 형상으로 변했다고 주장하며 7번 영혼이 윤회한다고 믿는다. 선한 인간의 경우에는 다시 별이 되거나 태양으로 되지만, 악한 인간의 경우 여자의 몸이나 돼지 같이 천하게 여기는 동물로 환생한다고 한다. 이들에게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존재하지만 부활의 개념은 없다고 할 수 있다

④ 사후세계

세크에 의하면 사후 천국에 가고 싶는데 현세에서 지은 죄가 많다면 성자 무덤에 가서 회개를 하면 죄가 사해진다고 한다. 죽은 뒤에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은 알라가 판단하는 것이며 선한 행동을 통한 속죄는 가능하다고 한다.

⑤ 개종

다른 종교에서 알라위로 개종이 가능하며 다른 종교 사

람들과 결혼 역시 가능하다.

⑥ 기도의식

현지 마자르(죽은 사람의 무덤 위에 세워진 알라위(Alawite)의 종교의식 장소)에서 관찰된 바에 의하면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와서 검은색 망토를 걸치고 팔에 노란색 줄이 그려진 쉼크(지도자급)에게 돈을 주면 그 쉼크 중심으로 사람들이 둘러 앉고 기도를 시작한다. 기도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아민(아멘)을 언급하며 얼굴을 쓰다듬기도 하고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경배하는 모양을 짓기도 한다.

4) 종교적 감수성

(1) 종교성의 강도

현지 모스크에서 관찰된 바에 의하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자유로웠고 조용한 분위기이었지만 엄숙함이나 신을 경외하는 모습 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자발 알 말렉(Jabal al malek)의 쉼크에 의하면 젊은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산을 찾는다고 했다. 관찰 결과 그 곳에서 상주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가족 단위로 기도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루 15명에서 20명 내외로 추정된다.

(2) 종교성의 특징

앞에서 언급했듯이 알라위는 소수 종파로서 자신들의 종교적 특이성 때문에 다수의 순니 이슬람을 비롯한 정통 타 종교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심지어 시리아의 이슬람 원리주의자이자 신학자인 이븐 타이미야는 알라위를 이교도이자 우상 숭배자로 단정하여 그들에 대한 지하드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억압으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성을 은닉하려는 성향을 강하게 보인다. 실제로 쉼크와의 인터뷰 중에 그들의 종교와 교리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는 은닉하고 포장하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는데 이것은 알라위파의 전체

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5) 종교지도자(쉐크)

(1) 영향력

까르다하 시내에 거주하는 쉘크는 마을에서 이맘(지도자), 하띠바(설교자), 그리고 무아진(애잔⁶³하는 사람)의 역할 등의 종교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산지인 자발 알 말렉(Jabal al malek)에 거주하는 쉘크는 이러한 역할 외에도 사람들에게 축복기도를 해주고, 정부에서 배급해주는 쌀, 설탕 등의 물품을 나눠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2) 선출 방법 및 양성 학교

방법 A⁶⁴가 관례적으로 인정하는 쉘크라면 방법 B⁶⁵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쉘크라고 할 수 있다.

① 방법 A

학식이 있고 마을에서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으로 똑똑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4-500명 단위에서 선출하되 투표는 하지 않는다.

② 방법 B

정규적으로 코란 교육을 받는 방법으로 다마스쿠스 대학의 이슬람법에서 공부하거나 학원이나 자마에서 코란과 인질(신약), 다우랏(모세오경), 자우랏(시편)을 공부해야 한다.

6) 정치와 종교의 연관성

(1) 정치구조-사회주의 독재정권

시리아의 정치구조는 북한을 모델로 한 사회주의 독재정권으로 1970년 하파즈 알 아사드가 일으킨 무혈 쿠데타로부터 현재 그의 아들인 바사르 알 아사드까지 2대에 걸쳐 바트(Baath)당의 아사드 가(家)가 집권하고 있다. 현존하는 몇 안

⁶³ 코란 읽는 소리를 일컫는 말

⁶⁴ 자발 알 말렉(Jabal al malek), 쉘크 아함마드(남, 67) 인터뷰

⁶⁵ 까르다하 자마(모스크), 쉘크 아썬함단(남, 50) 인터뷰

되는 사회주의 독재 정권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구조를 가지고 정치, 경제 및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역사적 배경

비무슬림이자 알라위파로는 처음으로 시리아의 대통령이 된 하피즈 알 아사드는 1928년 자발 알라위인(Jabal Alawiyyin)의 까르다하(Qardahah)에서 출생했다. 1971년부터 그가 사망하기까지인 2000년 까지 대통령으로 집권한 그는 재임 당시 실질적인 결정권과 통솔권을 행사하는 고급 장교들은 알라위파로 구성했다. 왜냐하면 소수종파인 알라위 출신인 대통령의 지지기반을 강력하게 하는 방법은 강력한 정권을 구사하여 사회 및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집권당인 바트당(Baath)은 기본적인 이데올로기인 사회주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움직임을 확장시켰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이집트의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이 전파되면서 시리아 내의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이 아사드 정권의 세속적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강력히 반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알라위파 중심의 바트당을 전면적으로 공격했고 급기야 무력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1979년의 알레포(Aleppo) 포병 학교 공격과 1980년 무슬림 형제당의 아사드 대통령 암살 시도 및 1982년 순니 장교들의 쿠데타 시도 등은 이슬람 원리주의를 앞세운 역사적인 사건들이었다. 결국 1982년 2월2일 시리아 군이 바트당과 무자히딘을 공격하고 자 대대적인 폭격을 감행했고 2만 - 3만 사이의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건물이 파괴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써 봉기가 진압되고 무슬림 형제단 활동가들은 피신했으며 수천의 무슬림이 이민을 떠난다. 그 후 1990년대 초반 이래로 하피즈 알 아사드는 형제단의 동태를 엄격하게 살피면서 자신의 친 이슬람적 경향을 내보이기 위해 이란과 같은 수니파 이슬람 공화국과 동맹을 강화했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이슬람지하드와 같은 무슬림 게릴라 조직이나 테러리스트 조직을 후원하기에 이르렀다.

(3) 종교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

시리아의 소수 종파는 특정지역에 거주하며 친족과 혈연관계로 밀집해서 하나의 단체로 모여 살기 때문에 강한 응집력과 정부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인다. 즉, 알라위파의 강력한 유대관계는 타 종교 및 종파에 대한 적대감과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강력한 결속력에 의한 결과인 것이다. 실제로 현지 인터뷰 중에 만난 알라위 소녀는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중에 끊임 없이 대통령을 찬양하는 어구를 사용했다. 타인이 시킨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나라와 취하는 행동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처럼 대통령이 알라위파로 하여금 갖게 하는 자부심은 실로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소수종파 출신을 극복하고자 국내, 외 적으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대외적으로 사용된 대표적인 기제는 이슬람보다는 아랍 민족주의를 통합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즉, 이슬람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다수의 수니파 이슬람 세력에 맞대응하며 전 아랍에 퍼져있는 아랍 민족주의를 기제로 내걸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나라를 조직한 것이다. 따라서 시리아 전 인구의 11% 밖에 되지 않는 소수 집단에서 2대에 걸친 강력한 정권이 창출 및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 타 종파가 알라위 종파에 대해 갖는 인식

(1) 역사적 배경 및 대응방법

알라위 종파가 가진 복잡한 신앙 체계는 다양한 타 종교의 교리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역사적으로 타 종파 즉, 정통 수니 이슬람과 크리스티교 및 정교회 등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 왔다. 소수 종파였지만 혼합적인 분명한 색채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의 현장에서 타끼야(Takiyya)를 선택 한다. 타끼야(Takiyya)란 방어적 위장으로서 즉, 자신의 신분에 위협을 느낄 때는 신분을 위장하거나 감추는 것이다.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로 인식하자 알라위 종파는 타끼야로 위장하여 라따끼아(Lattakia)의 북부 산지인 까르다하(Qardaha)로 대거 이동했다.

(2) 현장에서 관찰된 알라위 종파

14기 훈련팀은 알라위 종파가 99.9% 살고 있는 까르다하(Qardaha)의 모스크에서 금요일에 예배에 참석한 뒤, 종교지도자인 셰크를 만났다. 낯선 동양인들을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인터뷰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었고 준비한 질문들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가진 정보와는 달리 셰크는 알라위의 독특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교리적으로 정통 이슬람과 다를 것이 없다고 이야기 했고 인터뷰 하는 내내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하지만 모스크에서 만난 까르다하 현지 소년과의 인터뷰에서 알라위 종파는 환생설을 믿으며 자신 역시 알라위 사람으로서 그렇게 믿고 있다고 고백 했다.

또한 알라위 종파의 성지인 자발 알 말렉(Jabal al Malek)에서 인터뷰했던 셰크 역시 모든 종교는 평등하고 모든 종교를 인정하며 수용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구체적인 알라위의 교리와 특수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훈련팀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자발 알 말렉(Jabal al Malek)에는 알라위 종파가 숭배하는 선지자들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은 한결같이 녹색 천으로 뒤덮여 있었다. 알라위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지인 자발 알 말렉에 다녀 오면 기념으로 그 녹색 천을 가위로 잘라서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것으로 그들은 알라위 종파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킬리아(녹색팔찌)를 만들기도 하고, 집이나 자동차에 묶어 놓기도 한다. 처음에 훈련팀이 킬리아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물었을 때, 많은 알라위 사람들이 대답을 회피하거나 얼버무리곤 했다.

알라위 종파는 역사적으로 핍박을 받아온 경험들이 관습화되어서 자신들의 종교적 특수성이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은닉하려는 타끼야(Takiyya)적인 성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알라위 종파에 대한 오늘날의 인식

오늘날에도 역시 타 종파들이 알라위 종파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전반적인 인식

이 착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가 만난 알라위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무슬림이 착용하지 않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정통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미혼의 남녀간에 엄격한 경계가 있다기 보다는 편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함께 어울리는 경우를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타 종파가 알라위에 대해 갖는 부정적 인식의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바사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알라위라는 소수 종파 출신으로 다수의 순니 이슬람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도인 다마스쿠스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일명, 샤와 미라고 불리는 다수의 사람들은 알라위 사람들을 시골에서 사는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생각한다고 한다. 즉, 이전에는 크게 주목 받지 못하던 사람들인데 대통령이 독재 권력을 잡은 후, 출신 종파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요직에 등용함에 따라 갑자기 권력을 쥐게 된 사람들로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알라위 종파 사람들이 가진 권력의 힘은 두려워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그들을 향한 마음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8) 알라위 종파 및 시리아 이슬람의 앞으로의 전망

우리가 만난 시리아 알라위 종파는 이미 세속화⁶⁶가 많이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종교적인 색채가 매우 약하다. 이들은 다른 무슬림들과는 달리 그 삶 속에서 종교적인 교리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그들의 정치, 경제 등 실제 삶과 관련된 사회 전반적인 일에 더 집착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알라위의 모습은 이 종파가 종교라기보다는 한 정치집단과 같다는 인상을 준다.

그런데 이러한 알라위의 모습은 더 이상 알라위만의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 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리아

⁶⁶ 어떤 사회에서 신성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회제도나 인간생활 전반에 걸친 구속(종교)이 세속적인 규제의 형태로 바뀌어가는 사회과정

의 정권을 잡고 있는 종파가 바로 알라위 종파이며 현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체제로 인해 시리아 사회는 점점 더 개방화, 세속화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리아 국가와 알라위 종파를 위시한 시리아 이슬람은 어떻게 변모해 갈 것인가?

이들의 앞으로의 모습을 짐작해보기 위해 먼저 현재 세속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터키 이슬람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차 대전에서 패하고 몰락의 과정을 겪었던 오스만 투르크는 신지식인 계층인 청년 투르크를 중심으로 정치와 종교의 분리와 입헌군주제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오스만의 몰락 원인을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이슬람식 통치 방식에서 찾았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 터키의 민족적 영웅이자 초대 터키 공화국의 대통령인 케말 파샤 아타투르크(Ataturk)가 등장하면서부터 본격적인 터키의 세속화가 진행되었다. 현재 터키의 모습은 정교분리⁶⁷를 주장하는 정통파 케말주의 민중공화당(CHP)과 온건 이슬람주의를 주장하는 터키의 집권 정의개발당(AKP)의 대결구도 속에서 세속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지난 2007년 7월 총선을 통해 지금은 이슬람주의 세력인 정의개발당(AKP)이 정권을 잡고 있지만 터키의 한 일간지에 의하면 이들이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비결은 무엇보다 터키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한 경제적인 요인 때문이며, 앞으로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이 이슬람적인 색채를 강조함으로써 유권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⁶⁸

현재 터키는 헌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히잡 착용의 문제와 정교분리의 문제로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미 터키는 국립학교 내에서의 히잡 착용금지 조항을 법제화하고 있으며, 또한 정교분리를 모든 원칙과 가치의 초석으로 두며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는 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⁶⁹ 더러는 터키의 정교분리 정책을 두고 ‘케말주의 종교⁷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평가

⁶⁷ 케말주의자들이 말하는 ‘정교분리’인 터키어 ‘Laiklik’은 종교와 국가의 분리를 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에 의한 종교의 관리를 말한다.

⁶⁸ 터키 일간지인 밀리에트지(紙)의 경제논설위원 메틴 무니르의 논평

⁶⁹ 터키의 육군 수장인 일케르 바스버그와의 인터뷰, 터키시 데일리 뉴스, 2007년 9월 25일

⁷⁰ 초대 터키 공화국의 대통령인 케말 파샤 아타투르크를 우상화 하는 모습을 일컬음.

하고 있는데⁷¹ 실제로 터키에서는 아타투르크의 동상과 그의 초상이 시내 곳곳을 장식하고 있을 정도로 우상화 현상이 심하다. 이렇듯 이 나라는 오랜 세속화 과정을 겪으며 그들의 종교인 이슬람교의 모습조차 변해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이제 터키는 이란과 같은 이슬람 정치가 더 이상 불가능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점점 더 경제와 인권이 그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결국 이들에게서 이슬람적 요소는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시리아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역시 이슬람의 교리와는 맞지 않는 아사드 정권의 우상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강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종교를 관리하는 터키적 정교분리의 모습을 띠고 있다. 여기에는 개방화로 인한 시리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실현된다면 국민들은 점점 더 종교보다는 경제적 요소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만일 현정부가 이러한 시리아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리아에 경제적 불황을 야기시킨다면 다수인 순니파가 이 기회를 틈타 경제 발전과 이슬람주의를 주창하며 정권을 빼앗게 되는 일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듯 세속화로 인해 결국 시리아의 이슬람도 터키 이슬람처럼 그 종교적 모습이 많이 변질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한국의 한 선교사는 이슬람 세속화의 발전과정을 8단계⁷²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비추어 터키의 이슬람과 시리아의 이슬람을 평가해 본다면 터키는 6단계(서구 민주주의의 침투)의 과정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시리아는 4단계(교육, 개방을 통한 민중의 봉기)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두 나라는 결과적으로 이슬람 정권의 붕괴라는 큰 파국의 상황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

10.기독교 상황

1) 기독교 현황

⁷¹ 프랑스 월간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Le Monde Diplomatique), 2008년 1월호

⁷² 세속화 - 교리충돌 - 종교성의 저하 - 교육, 개방을 통한 민중의 봉기- 정치, 경제의 일 변화, 대중화 - 서구 민주주의의 침투 - 이슬람 정권의 붕괴 - 혼란 (이상 8단계)

(1) 종족언어 성경: 있음

(2) 종족언어 영화 “예수”: 있음

(3) 종족언어 기독교 방송매체

알라위 사람들에게는 복음주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청취하거나, 위성을 통해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지만 복음을 설명해줄 수 있는 현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란 매우 드문 일이다

(4) 교회수/목회자수/평신도지도자수: 교회 없음, 목회자 없음

(5) 사역단체: 없음

(6) 선교사수: 없음

2) 기독교 인식

(1) 기독교 반응도: 긍정적이며 호의적, 그러나 수동적인 태도

(2) 기독교에 대한 인식

셰크와의 인터뷰⁷³에 의하면 알라위 사람들은 ‘코란에 언급되었듯이 알라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기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기독교인과의 결혼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며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는다⁷⁴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짐작해 보면 알라위 사람들은 적어도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듯하다. 그런데 우리가 알라위 종파의 성지(holy place)를 물어봤을 때 이들이 가장 먼저 언급한 곳이 마알룰라⁷⁵, 그 다음으로 언급한 곳이 세이드나

⁷³ 자발 알 말렉(Jabal al malek), 셰크 아함마드(남, 67) 인터뷰

⁷⁴ 이것은 다만 인터뷰 중에서 언급된 내용일 뿐, 실제 여러 자료를 종합 해보면 이들은 알라위 사람들의 개종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⁷⁵ 예수님께서 쓰셨던 아람어의 흔적이 남아있는 도시로, 많은 이들에게 유명한 기독교성지

교회⁷⁶이었다는 점과 인터뷰 내내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알라위의 기독교에 대한 이러한 호의
적인 반응은 결국 이들 종교의 혼합주의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 아닌가 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3) 종교적 변화에 대한 개방 정도: 엄격하지 않지만 수동적.

3) 요약

시리아는 어느 정도 기독교가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알라위를 포함
한 시리아 무슬림들은 기독교를 접하기 매우 쉽다. 또한 요즈음은 라디
오나 위성,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다양한 기독교 방송을 청취 할 수도 있
다. 하지만 본 조사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알라위 종파를 대상
으로 사역하는 선교사가 아직 없으며 특히 까르다하 마을에는 교회조
차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들이 올바르게 복음을 접하고, 양육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알라위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심한 거부감이 없다. 오히려 알라위
종교는 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합주의적 특성을 띠기 때문에 긍정적이
고, 호의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종교 속에서
도 기독교적인 요소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앞으로 알라위를 대상
으로 하는 장기 사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좀 더 쉽게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11.요약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시리아 알라위 종파의 특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알라위는 은닉성이 내부에 깊숙이 베어
있는 종파이다. 역사적 사건들을 겪으며 알라위는 자연스레 자신들을 외부
에 드러내지 않으려는 은닉성이 오늘날에도 종파 전반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종교적 정체성은 알라위 내부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아 대부
분의 알라위 사람들도 자신들의 종파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를 쉽게 발
견할 수 있었다.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⁷⁶ 마리아 기념교회

두 번째 알라위 종파의 특징은 종교성의 약화이다. 이는 이미 종교 부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알라위 종교가 이슬람의 교리를 모두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들만의 다양한 해석들을 적용시키며 많은 부분을 타협하면서 지내왔다는 사실과 여성들의 구원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 등의 교리적 인 이유를 가장 먼저 들 수 있다. 또한 정치, 경제적으로는 시리아의 다양화 및 개방화의 정책에 따른 서구문물의 유입으로, 알라위 종파의 세속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알라위의 은닉적인 성격과 종교성의 약화로 인해 이들은 점점 자신의 종교와 정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재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일들에 더욱 관심을 쏟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아래 선교전략 부분에서는 이들이 이러한 성격을 띠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이러한 특징들이 알라위 선교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는지를 다시 한 번 짚어볼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특징들의 변화과정 등을 살펴보고 차후 알라위 종파 선교의 가능성과 효과적인 복음화 전략들을 제시하려 한다.

IV. 시리아의 현재 이슈들

1. 시리아-레바논 수교

1) 역사적 배경

시리아와 레바논은 역사적으로 긴 혼란의 시기를 공유했다. 아랍 무슬림 왕조 시대부터 자치국으로 인정 받은 1926년까지, 레바논은 시리아의 속국으로 인식 되어왔다. 이 후 이스라엘과 PLO(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레바논 내에서는 이슬람교도와 마론파 그리스도교 간의 내전이 일어나자 시리아는 레바논 내에 정규군을 투입했다. 시리아는 아랍 평화를 명목상의 이유로 내세우며 아랍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3만여 명의 정규군을 주둔시켰다. 그러나 2005년 4월, 국제사회의 압력과 전 레바논 총리의 사망으로 인해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고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뒤로 한 채, 지난 8월 시리아와 레바논은 62년 만에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

2) 정치적 안정 vs 혼란의 시작

이 두 국가는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 레바논에게 시리아는 이라크와 스위스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수출 상대국이고, 시리아 역시 레바논에게 값싼 노동력을 공급해왔다.⁷⁷ 이렇듯 두 국가는 여러 분야에서 서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번 국교 수립에 관해 미국 안보 담당 보좌관인 콘돌리자 라이스는 이번 국교 수립이 양 국가 간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⁷⁸ 또한 프랑스의 대통령 사르코지 역시 중동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이렇게 국외적인 관심과 지지 속에 국제 정치적인 중동 평화와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상회담 직전인 13일에 레바논 트리폴리에서 국교

⁷⁷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0808/h2008081503183822550.htm>

⁷⁸ 세계일보 2008.08.15

수립에 반대하는 폭탄 테러가 발생해 18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반 시리아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국내적으로 수교와 그 이후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혼란의 시기의 시작인지, 평화의 물길을 여는 시작인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2. 한국 선교사의 추방 문제

1) 현재 사역 진행 상황

현재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는 한 개의 한인교회와 약 11가정이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여성 사역자는 이라크 난민들 중 특히 주부를 대상으로 십자수 사역을 하고 있고, 소수의 몇몇 가정은 내부자 운동의 일환으로 무슬림 사회에 정착해서 현지인과 깊은 관계를 맺고 구체적인 복음의 접촉점을 찾고 있다. 또한 한 여성 사역자는 현지인 자매와 함께 교육과 문화적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는 판자촌의 쿠르드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다. 그들은 난민들을 위한 야유회를 주최하고 음식을 나누고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2) 강제출국 및 입국거부

시리아 현지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지난 5월 비자 연장을 위해 이민국에 갔던 두 분의 선교사 가정이 그 자리에서 감금되어 강제로 추방당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현지 이민국 직원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선교사의 신분이 의심스럽고, 쿠르드 집단 거주지역(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여행한 것을 빌미로 강제추방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또한 6월 말에는 시리아 다마스쿠스 공항에서 한 선교사 가정이 입국 거부 조치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경우들은 한국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뜻밖의 조치였는데 왜냐하면 반미감정의 악화로 미국 선교사들을 입국 거부나 자진 출국시키는 경우는 있었지만 한국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전례에 없던 일이기 때문이다.

3) 아프간 사태 이후의 사역 방향

이렇듯 많은 사역자들은 지난 아프간 사태 이 후 쉽지 않은 현지 생활을 하고 있다. 비 기독교 국가 특히 이슬람 국가들을 중심으로 선교의 문이 굳게 닫히는 추세이고, 현지 대사관들도 선교 단체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역자들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들로 간주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필드로 나가는 것뿐 아니라 필드에서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현지 선교사들은 복음만을 가지고 나가기 보다는 현지에서 안정된 신분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좀 더 전문적인 기술과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V. 알라위 종파의 선교전략

1. 기존 선교 현황

1) 선교의 역사

시리아는 구약시대 아람(Aram)이라고도 불렸으며 성경에 수리아(Syria)라고도 번역되었다. 아람은 셈의 아들의 이름으로 과거 아람의 후손들이 거주하던 곳을 아람이라고 불렀다.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해 이스라엘과 적대국으로 잦은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신약에서 본다면 시리아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곳이다. 시리아 초대교회에 대한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을 지하교회로 밀어내었고 이슬람의 팽창과 함께 교회 역사는 표면적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근대 초반 시리아의 선교활동은 영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1800년대 초 영국인 목사 그레함과 알렌이 다마스쿠스에서 사역을 시작하였고 1846년 폴딩박사가 다마스쿠스에서 진료소를 열기도 했다. 또 1847년에는 영국인 학교가 다마스쿠스에 세워지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여오다가 1860년 알 다다히나에 '복음주의 다마스쿠스 교회'가 시작되었다. 다른 교단과 교회들의 활동이 뒤따라 일어났으나 1957년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문제로 영국, 프랑스가 대립하자 이를 기회로 시리아 정부가 국내에 있는 선교사들을 모두 추방하게 된다. 그 후로 시리아 선교의 문은 장기간 닫히게 되었다.⁷⁹

1970년 소수종파 알라위 출신 하페즈 알 아사드의 쿠데타에 의해 시리아가 사회주의 노선을 걷게 되면서 다수 기득권 세력인 무슬림에 대한 강경한 견제가 실시되었다. 이 같은 상황은 시리

⁷⁹ 2000, 공일주, 아랍교회에 부흥 있으나, p27-39, 도서출판 예루살렘

아 교회에 가해지던 압박을 오히려 덜어주는 결과를 가져왔고 세계 교회는 다시 시리아에 주목하고, 여러 통로로 선교사들을 파송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말 한 가정을 시작으로 2005년 이후로는 꾸준히 선교사 파송이 이뤄지고 있고, 최근에는 시리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어 많은 중, 장기 및 단기 사역 팀이 시리아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의 반면으로 최근 시리아에 거주하는 한국인 선교사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시리아 정부가 한인 사역자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에는 한국인 선교사 두 가정을 강제 추방시키고 한 가정을 입국 거부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

2) 국제 및 한국 사역단체(NGO 포함)의 활동현황

시리아는 소규모 모임에 대한 비밀경찰들의 감사가 철저하므로 활동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지에서 본인의 신분을 노출시킨 채 활동하는 선교사는 아무도 없으며, 만약 거주 이외의 활동이 발각 되었을 경우, 제재와 감시는 물론 추방과 같은 극단의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이곳에서는 비단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역단체의 활동뿐만 아니라 종교적 색채를 띠지 않는 비영리 단체(NGO)의 활동조차도 금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인 시리아가 외국 문물들을 수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시리아 내에 이라크 난민의 문제 등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들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리아에는 국제적으로 OM, YWAM, IMB(남침례교), 프론티어즈, 소울 등에 속한 많은 선교사들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IMB, OM, 프론티어즈 등의 선교단체가 연합하여 Shout for Joy Syria 기도운동을 전개할 2004년 당시만 해도 단 한 가정뿐이었던 한국인 선교사의 수 역시 지난 2005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대략 11가정 정도의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선교사의 수뿐만 아니라 한국인 선교사의 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선교사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게 될 것

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현재 알라위 종파를 중점으로 하는 전략적 선교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알라위 종파는 그 존재가 외부에 많이 드러나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를 시도한 적은 몇 차례 있었으나 본 조사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를 시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아 강제 추방당했으며, 그 사역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례는 전혀 없다.

현지인, 현지 선교사들과의 인터뷰 자료들을 토대로 한동대 팀이 조사한 바는 위와 같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알라위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역단체나 NGO, 사역자들이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3) 영적 상황

시리아는 정보부 요원이 시리아 전체 인구의 20%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심하다. 종교적으로도 시리아는 헌법상 이슬람 국가이므로 타종교의 포교 활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다만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알라위 종파가 이슬람의 소수종파여서 기독교와 같은 소수파 집단 사람들에게 우대 정책을 펴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타종교의 종교적 모임과 활동에 대한 시리아 정부 요원들의 감시가 엄격하다.

이와 더불어 정치적으로 이들은 미국, 한국 정부에 대한 반감까지 갖고 있다. 미국 정부에 대한 시리아 정부의 태도는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되어왔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에 대한 이들의 태도는 주목 해볼 만 하다. 현지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한국 정부의 친미, 친 이스라엘 정책, 핵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은 시리아를 포함한 아랍 국가들에게 신뢰를 잃었다고 한다. 실제로 현지인이 비밀 경찰에게 잡혀갔을 때 직접 이러한 말을 정보부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한국 선교사들이 시리아 내에서 사역하기란 쉽지 않다. 지난 2008년 5월에는 실제로 비자 연장을 위해 이민국에 갔던 선교사 두 가정이 그 자리에서 감금되어 강제 추

방 당하는 일을 겪었고⁸⁰, 또한 6월에는 공항에서 선교사 한 가정
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입국 거부를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한다.
현지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시리아 정부에서 한국 선교사들을 대
상으로 강제 출국이나 입국 거부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2. 알라위 종파 선교의 방해요소

1) 종파 외부적 방해요인

(1) 비밀경찰

1970년 하페즈 알 아사드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
한 이후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리아 정부는 다수의 순니, 시
아 세력들과 그밖에 현정권에 대항하는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노
력해왔다.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 이
들은 비밀경찰들을 조직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감시하였고, 이런 과
정에서 시아파 무슬림 형제단을 강경하게 진압한 1982년 ‘하마
(Hama)의 참극’은 많은 이들의 비난을 불러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에는 아직까지 팔
미라, 무슬림 형제단과 같은 반정부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들을 위시한 또 다른 반정부 세력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문제
는 항상 시리아 현정부의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또한 이들을
통한 정보유출도 시리아 정부의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
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리아 정부는 다수의 비밀경찰들을 곳곳에
포진하여 국민들의 모든 활동들을 감시하고 있다. 확실치는 않으나
비밀경찰의 수가 시리아인의 20%나 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가히 짐작 할 만 하다.

비밀경찰의 존재는 시리아 내 선교사들의 활동에도 늘 제
약이 되고 있다. 특히 정권을 잡고 있는 알라위 종파를 대상으로
선교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본 조사팀이

⁸⁰ 이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리아 북쪽지역(쿠르드 집단 거주지)을 여행했다는 명목으로 추방당했다고 함.

알라위 종파의 본거지인 까르다하 마을에서 리서치를 수행할 당시, 우리의 활동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비밀경찰들에게 포착되어 그들에게 감시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비록 이 사건이 크게 문제시 되지는 않았으나, 이는 시리아 정부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다른 세력들의 접근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 종파 내부적 방해요인

(1) 자기방어

현지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시리아 사람들의 대부분은 알라위 종파에 대해 심한 반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알라위 사람들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1970년 이후, 무력으로 정치와 사회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는 등의 특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리아 내에서 알라위 종파 사람들은 다수의 순니, 시아파 사람들에게 무식한 사람, 촌뜨기, 가난한 사람 등으로 통하곤 한다.

사람들의 이런 인식은 알라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를 점점 더 감추게 하고, 자기를 방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알라위 사람들의 행동은 단순히 알라위 종파가 무력으로 정권을 잡고 있는 소수종파여서 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종파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도 볼 수 있다.

비슷한 예로 시리아 내에 거주하는 드루즈 종파가 있다. 이 종파는 정권을 잡고 있지는 않지만 알라위 종파와 같은 소수종파로서 그들만의 정체성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곤 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이들은 외부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자신들의 종교와 정체를 감추기도 한다. 알라위 종파도 드루즈 종파와 같은 소수종파로서 이와 비슷한 행동을 보이기 마련이다. 실제로 본 조사팀이 알라위 종파의 본거지인 라타키아주 까르다하 지역에서 알라위 종파를 대상으로 리서치를 수행하였으나 이들의 대답이 우리가 사전에 조사해간 자료의 내용과는 너무 달라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제시할 목적으로 그들

에게 접근하는데 매우 큰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3) 기존선교활동의 한계

(1) 민감한 지역, 감춰진 종교

현지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알라위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 활동을 시도한 경우는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다고 한다. 일례로 2005년에 어느 선교단체에 소속된 미국자매는 시리아에 약 2년 정도 머물면서 라타키아와 까르다하에 있는 알라위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였다. 이 자매는 우선 6개월 동안은 언어를 배우는데 집중하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사람들과 Friendship를 형성하여 사역을 하였는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현지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한계점과 알라위 사람들도 자신의 종교에 대해 무지할 정도로 이들의 종교와 정체가 철저히 숨겨져 있어 이들을 조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고 한다. 결국 이 자매는 정보부원들의 감시를 받다가 타국으로 추방 당하였고, 이 자매를 도와 통역을 맡았던 라타키아에 거주하는 시리아 자매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 정보부에 끌려 갔다고 한다. 또한 다른 선교단체에 소속된 미국부부 역시 2005년 말에 입국하여 라타키아에 거주하는 알라위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황화 사역하다가 결국 1년 만에 타국으로 추방당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시리아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라타키아주 까르다하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알라위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비밀경찰들에 의해 쉽게 발각되고, 추방 당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2) 불분명한 거주 목적

알라위 종파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시리아 전역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활동이 정보부원들에게 쉽게 노출되고, 그들이 추방당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들이 시리아에 거주하는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직 한국과 수교도 되어있지 않은 나라에 여행 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비자 문제로 인해 시리아 전역에 넓게 퍼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녀들의 학

생비자가 아닌 다른 여행비자로 시리아에 입국한 많은 사역자들이 정부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란 전혀 없다. 이러한 요인이 시리아에 거주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활동하는데 큰 제약이 되고 있다.

2. 알라위 종파 선교의 가능성과 성공사례

1) 기존 방해요소들의 변화

비밀경찰에 의한 감시와 알라위 종파의 자기방어는 소수종파인 알라위가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더욱 철저하게 유지될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현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다수의 순니 등 다른 종파와 반정부 세력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현정부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무력으로 이들 세력을 압박할 것이며 이는 알라위를 대상으로 선교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현정권의 유지가 오히려 알라위 종파의 선교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우선 시리아는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권하고 있는 알라위 종파가 소수종파이기 때문에 현정부가 소수파 보호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한 시리아 내에 있는 사역자들이 활동하는 것이 크게 제약받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하페즈 알 아사드 전대통령의 아들인 바샤르 알 아사드가 대를 이어 집권한 때부터 시리아는 빠른 개방의 물결을 타고 있다. 이미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약 14개나 되는 사립대학이 인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를 통한 서구 문물의 유입, 개방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시리아는 이슬람 국가인 이란과는 달리 따로 이슬람 법을 시리아 법 위에 두고 있지도 않다. 물론 시리아가 아직까지는 금융제재와 같은 많은 통제가 있기는 하나 이 나라가 이슬람 사회주의 국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가히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만약 금융제재마저 풀리게 된다면 많은 서양 기업에서 대규모의 자본과 문화들이 시리아로 유입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하여 시리아 현지의

많은 선교사들은 오히려 현정권의 유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한다.

시리아 현정부의 유지는 비단 국가 차원의 긍정적인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권을 잡고 있는 알라위 종파 사람들이 다른 이들로부터 받는 안 좋은 인식과 천대는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무식한 사람, 천대 받는 사람, 멸시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조사팀이 현지 선교사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알라위 종파 사람들, 특히 정권을 잡고 있는 아사드 가문을 계속 만지고 계시다고 한다. 일례로 현 대통령의 부인인 아스마 알 아사드 여사의 사촌이 꿈에 피 흘리는 사람의 손이 나와서 “나를 믿어야 너희가 산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극히 작은 예에 불과하다고는 하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시리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알라위 종파는 이슬람의 다른 어떤 종파보다도 가장 빠른 속도로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정체성은 무슬림이나 알라위는 다른 무슬림들에 비해 종교적 색채가 매우 약하다. 또한 이들은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는 속도도 매우 빠르며 그 단적인 예가 여성들의 노출이 심한 옷차림에 여실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앞으로 알라위 종파를 대상으로 선교하는데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리라 예상한다.

2) 세계 및 한국 선교상황의 변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2004년 Shout for Joy Syria 기도운동 이후로 2005년부터 시리아에는 장기 선교사들이 많이 유입되었다. 현재 시리아에는 한국인 선교사의 수만 약 11가정이나 되고, 이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에 발생한 한국인 선교사 추방 문제는 시리아 내 선교사들 사이에 새로운 전략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지 선교사에 의하면 선교지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한다. 기도, 성령 그리고 연합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도 바로 이 연합의 문제이다. 시리아로 파송되는 선교사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단 사역을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위기 상황을 직면했을 때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이를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역자들 간의 선교단체 간의 온전한 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3. 효과적인 복음의 접촉점

1) 알라위 대학생

알라위의 젊은이들, 특히 대학생들은 외국인, 외국문화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의 다른 젊은이들처럼 현정부의 정치, 경제체제에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시리아의 개방화, 세속화 물결로 인해 외국 문물들을 동경한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

이들은 대부분 공무원과 군인이 되어 시리아의 중심부에서 현정권을 유지해나갈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화 전략은 이들뿐만 아니라 향후 시리아 정치,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위성방송

시리아 전역에는 위성방송이 보편화 되어 있다. 이는 까르다하 마을도 예외가 아니며 실제로 이를 통해 사람들이 많은 정보들을 제공받는다고 한다. 까르다하와 같이 복음을 직접 전하기 어려운 지역은 위성방송을 통한 복음의 전파가 효과적인 복음의 접촉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런 매체는 정부의 감시와 규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고, 본인이 보고 싶은 채널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이점이 있다.

3) 지속적인 관심과 교제

앞서 제시한 사례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방인이 알라위 종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에 대해서 알아가기란 쉽지 않다. 우선 그들조차도 자신의 종교와 정체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뿐더러 소수종파이기에 그만큼 감춰져 교리와 사상 등이 비밀리에 전승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알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지속적인 관심과 교제이다. 단기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교제를 통해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알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태권도

한국인으로서 그들과 가장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 중 하나가 바로 태권도이다. 까르다하에는 현지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이 하나 있으며 많은 아이들이 방과후에 태권도를 배우곤 한다. 외국인이 까르다하 마을에 들어가 거주하며 알라위를 대상으로 사역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나마 가장 자연스럽게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현지인과 동업하여⁸¹ 태권도를 가르치며 아이들을 중심으로 복음의 접촉점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4. 성공사례

1) 기존 선교사의 선교전략

본 조사팀이 조사한 바에 그 동안 알라위를 대상으로 사역한 선교사들 중 그들을 복음화시키고, 양육하여 이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 밝혀진 바 없다. 기존 선교사들이 시도한 상황화 전략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한 복음화 전략 등 아직까지 성공한 케이스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알라위 종파에 대한 선교가 우리에게 좀 더 지혜로운 접근 방법을 요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2) 복음화된 종족과의 유사성

알라위 종파와 같은 소수종파인 드루즈 종파는 이제 부흥이 시작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드루즈인들 사이에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현지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레바논에 거주하는 드루즈 종파에는 선교단체 오엠(OM)을 중심으로

⁸¹ 시리아 행정법상 외국인이 혼자 학원을 차릴 수 없다고 함.

이미 50개 이상의 기독교 소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고, 시리아에도 스웨이다, 제르마나 지역을 중심으로 드루즈 공동체가 활발하게 결성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성경책을 생전 처음 접한 드루즈인이 성경을 읽으며 말씀대로 부인의 중풍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부인의 중풍이 나은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이는 비록 같은 종파는 아니지만 이슬람의 소수종파라는 유사성이 있는 알라위 종파의 복음화에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5. 알라위 종파의 선교전략 제언

1) 선교전략 기본방향 제시

시리아의 정권을 잡고 있는 소수종파인 알라위 종파는 그 존재가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가 몇 차례 시도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언제든지 다수의 순니, 시아 또는 반정부 세력들에 의해 정권을 빼앗길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알라위 종파를 둘러싼 정부요원의 감시가 매우 엄격하며 이는 알라위 종파를 대상으로 한 그간의 선교적 접근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되어왔다.

위에서 언급한 사실과 같이 외부적으로는 비밀경찰의 존재가 이들의 복음화에 가장 큰 방해요소라고 할 수 있겠으며, 내부적으로는 알라위 종파의 외부로부터의 자기방어, 이를 통한 종파의 은닉성을 방해요소로 들 수 있겠다. 또한 선교사들이 지리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감춰진 알라위 종파를 대상으로 사역한다는 것과 이들이 시리아에 거주하는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사실은 기존 선교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라위 종파가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장기적인 알라위 복음화 전략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선 현정부의 소수파 보호정책은 시리아 내에 있는 사역자들과 현지 기독교인들의 활동에 어느 정도 보호막이 되어주고 있으며, 둘째로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집권으로부터 시작된 개방화 물결은 사회주의 국가이자 이슬람 국가인 시리아의 서구 문

물 유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개방화 물결에 알라위 종파가 선봉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알라위 종파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본거지 접근을 목적으로 한 단기 사역과 그들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장기 사역이 동시에 수반 되어야 한다. 이는 알라위와 같은 소수종파의 특성상 그들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서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 전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차적 목표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그렇다고 해서 지리적으로 민감한 알라위 종파의 본거지에 거주하며 그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사역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서는 사실상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하 대상별, 분야별 전략 제언에서는 이러한 관계형성을 통한 장기 사역 방안들과 본거지 접근을 위한 단기 사역의 방안들을 제시한다.

2) 대상별, 분야별 전략 제언

(1) 알라위 대학생 사역

요즈음 한창 주목을 받고 있는 선교전략 중 하나는 각 나라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퍼스 사역이다. 이는 한국 대학생 혹은 청년들이 각 나라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사역으로서 실제로 시리아 내에 한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열매도 상당하다. 캠퍼스 사역은 같은 학생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신뢰를 형성하여 자연스럽게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알라위 종파의 본거지인 라타키아주에도 알라위 사람들이 많이 가는 티슈린 대학교가 있다. 외국인에게 관심이 많고, 외부 문화를 빠르게 수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사역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을 통해 까르다하 마을에 복음이 전파될 수 훌륭한 복음의 접촉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사역자들이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좀 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 티슈린 대학교와 한동 대학

교 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실제로 한동 대학교는 아프가니스탄의 칸다하르 대학과 교환협정을 체결한 2003년 4월부터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보호 아래 교수 및 학생 교환, 합동 연구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들을 복음 전파의 계기를 마련해왔다.

(2) 십자수, 비드 등을 통한 여성사역

알라위 여성들은 다른 무슬림들처럼 복장과 활동에 큰 제약을 받지는 않지만 이들의 지위 역시 남성보다 열등하게 여겨지며, 여성에 대한 차별이 사회 전반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알라위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까르다하와 같은 농촌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전업주부로 종사하는 비율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가정에서 보내는 알라위 여성들을 대상으로 십자수, 비드 등을 통한 교제사역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아랍문화의 특성상 이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며 담소를 나누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데 오랜 시간 이들과 같이 십자수, 비드와 같은 활동들을 하며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알라위 여성들은 종파의 특성상 자신들의 정체와 종교를 감추려고 하는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이상 이들을 알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심과 교제를 바탕으로 이들과의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 이 사역은 매우 효과적이다. 실제로 시리아의 현지 사역자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많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그 열매 또한 상당하다고 한다.

(3) 태권도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아프가니스탄 선수가 자국에 72년만에 최초로 메달을 안겨주었고 이는 큰 이슈가 되었다. 이와 같이 태권도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중동에서도 인기가 있는 스포츠이다. 까르다하에서 리서치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태권도의 인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 태권도를 통하여 까르다하에 침투하여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출전 전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우리나라는 태권도 강국으로 전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다. 태권도 4단 이상의 현신된 사람들이 이 곳에서 태권도 도장을 열면서 동시에 사역활동을 한다면 그 지역에서 명망도 얻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단, 시리아에서는 외국인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고 반드시 현지인과 동업을 해야 한다. 이 부분에 유의하여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영어

시리아는 도시간의 격차가 크게 존재하며 교육 서비스도 다양하지 않다. 대도시도 아닌 소규모 도시인 까르다하는 사람들이 교육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많지 않다. 좀 더 실용적인 영어 교육을 위해서 까르다하에는 영어 회화가 가능한 영어 교사가 필요한데 영어를 잘하는 사역자라면 학교의 교사로 이 지역에 침투할 수 있다. 실제로 까르다하 현지에는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본인과 영어를 가르치는 필리핀 사람이 있다. 그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그 지역의 교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상황화 사역으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이 곳에 머물며 사역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린 학생들부터 청년들까지 영어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어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까르다하에서 의심받지 않고 쉽게 사역할 수 있을 것이다.

6. 현지교회 개척 전략

1) 전도의 방향성

아랍 문화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시리아 알라위는 내부적 응집력이 강하다. 국가의 정권을 잡고 있는 종족 성격의 소수 종파라는 특수한 상황이 알라위를 더욱 강하게 결속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가족 중심의 회심이 유도되어야 한다. 추아 위 히안은 전 가족의 복음화(Chua. Wee Hian, *Evangelization of Whole Families,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1975,U.S.A.)에서 ‘거미줄 같은 가족관계’를 통한 집단 복

음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무슬림 가족과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 공동체의 어른과 지도자들의 회심에 의해 한 지역의 무슬림들이 전체가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회심한 개인을 가족과 집단에서 빼내야만 하는 진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특징과 사례들을 살펴볼 때 알라위 종파의 선교적 전략에서도 가족중심의 회심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법 면에서는 우회적인 전략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비공식적인 이유로 알라위와 눈에 띄게, 큰 규모로, 빈번하게 접촉하는 것은 정부로부터의 간섭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전도의 방향은 직접적으로 알라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 학업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알라위 밀집 주거지역을 떠나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들 중에도 가장이 특별히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알라위의 사회 구조상 알라위 안에서 이뤄지는 교회의 최소단위는 각기 다른 가족에서 모인 개인들의 집단이 아닌 혈연을 매개로 한 가족이 될 것이다. 가장의 회심은 가족의 회심을 유도하게 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회심한 이들이 돌아가서 자신의 가문과 종파 안에서 스스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선교사에 의한 알라위 선교가 아닌, 그들 스스로가 자신이 가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2) 교회의 형태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형태로 가족 중심의 회심이 이뤄지면 가족 단위의 교회가 형성된다. 가족은 가장을 먼저로 회심과 함께 모두 세례를 받으며 가장이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부르게 가족원에게 세례를 주거나 교회형성을 주도하는 것은 위험하다. 알라위의 교회는 가장이 리더가 되어 이끄는 것이 문화적으로도 충돌이 없고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인 건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특별한 장소에 따로 모이지 않는다. 리더인 가장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 때 까지는 선교사에 의해 설교가 이뤄지고 양육을 받는다. 이 교회의 예배 형식은 선교사가 자신의 문화권에서 가져온 형태를 강요해선 안되고, 알라위의 예배형식을 그대로 수용해서

도 안 된다. 선교사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성경적 관점에서, 본질적인 손상이 없는 범위의 예배 형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알라위는 순니나 시아 무슬림과는 달리 집단 종교의식에 참석하거나 종교 행위를 하도록 강요되지 않으며 종교와 융합된 문화적 기반이 약해 회심한 알라위 가족이 종파 안에서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 이와 같은 이점들로 알라위의 교회는 높은 상황화 수준이 요구되지 않으며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교회를 확장하거나 또 다른 교회를 형성할 수도 있다.

3) 현지 지도자 양성

알라위 안에서의 지도자는 위에서 밝힌 것과 같이 가장이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선교사는 가장을 중점으로 양육하고 점검하며 또 다른 지도자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리더는 작게는 자신의 가정 안에 형성된 교회를 돌보고 나아가서는 다른 지도자들을 양성하며 큰 교회를 형성한다. 선교사는 정기적으로 이들을 만나고 점검하며 조력하는 역할만 담당할 뿐 교회가 이들 안에 토착적으로 형성되도록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VI. 나가는 말

21세기의 전략적인 복음의 접촉점을 제시한다는 명목 아래, MFR14기는 시리아의 알라위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활과 사회 및 종교 등을 조사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알라위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마음을 대신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다.

라타끼아와 까르다하에서 만났던 알라위 사람들은 순박하고 정 많은 따뜻한 사람들이었지만 종종 맘몬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또한 까르다하 지역의 알라위 종파를 조사하면서 그들의 종교적인 특성과 민족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교리적으로 알라위 종파는 모든 종교의 교리를 조금씩 혼합해 놓은 듯했는데 개신교와 수니 이슬람 및 정교도와 토속신앙까지 많은 부분이 중첩되어 있었다.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의 끝자락을 달리고 있는 오늘날, 혼련팀은 알라위 종파야말로 마지막 세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종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

알라위 종파는 소수종파이자 이단 종파로서 그들의 종교를 은닉하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 알라위 종파를 위한 전문 사역자는 단기팀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촉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들이 믿고 있는 신과는 상관 없이 복음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친밀한 관계 위에 복음을 전파할 때 더 효과적일 것이다.

드루즈 종파에 이어 또 하나의 소수종파인 알라위 종파를 조사하면서 혼련팀은 양 종파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었고 그들의 특징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알라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소수 종파들을 조사하고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